Weekly 공감
2011.03.09 NO.100
gonggam.korea.kr

100점 세상을 위하여 '공감'을 배달합니다 P21~45

문화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임상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2009년 3월 첫 선을 보인 〈위클리 공감〉이 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독자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문화와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문화경제학자 입장에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요하게 전통이 숨 쉬는 영국에 비하면, 한국은 분명 힘차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특히 신속한 민원 처리와 서비스 정신은 세계 최고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유럽을 누비는 한국 제품들은 개인적인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새로운 것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방송 앵커는 젊고 아름답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지만, 영국 BBC방송에서는 외모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앵커가 공존했습니다. 그들의 의상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쁜 삶을 영위하게 마련이지만 영국인들의 삶은 대체로 관조적이면서도 단순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인상적인 것은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지역)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력은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고, 한 회계전문가가 펴낸 〈레이크디스트릭(Lake District) 가이드북〉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볼 때마다 학문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됩니다.

사회적 변화는 문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을 홍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최고가 아님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문화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의 문화를 창출하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끈 역동적인 시스템은 미래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차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젊은 세대를 우대하는 대신 장노년층을 홀대합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경제선진국이 됐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경계를 짓지 않는 영국의 성숙한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경제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는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선 금전지상주의와 생존경쟁을 심화시키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진정으로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되기 위해 〈위클리 공감〉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룩한 우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게 꾸준한 문화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의 문화를 창출하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위클리 공감〉의 역할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분명하되 압도적이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충실한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G

Contents

일러스트 · 이철원

기획특집

100점 세상을 위해 서로 '공감' 하세요

요즘 '공감(共感)'이란 말 많이 듣습니다.
책 제목이며 방송프로그램 이름까지 '공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 나 역시 그렇다고,
같은 울림이 이는 감정이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제호에 '공감'을 담은 〈위클리 공감〉 100호
발행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두들겨봅시다.

표지 이야기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의 이사장인 배우 최수종씨가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사진 ·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

NO.100
2011.03.09
통권 201호

위클리 공감 www.gonggam.korea
발행일 2011.03.0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14

46

62

48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99호를 읽고

외국인의 입맛을 잡은 '맛있는 한류'

"'맛있는 한류'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뉴욕에 비빔밥 광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실제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입맛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한식을 좋아한다니, 신기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우리의 한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강준석**

군대 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깊이 공감

"민승현 사랑의책나누기 운동본부장 인터뷰를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2년 동안 군인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군대 내 도서관을 만들자는 운동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자와의 대화나 전문가초청 강연회 등도 한다니, 운동본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젊은 날의 소중한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숙**

학부모 입장에서 사교육비 감소 반가워

"어린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첫 감소'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사와 학생들의 열정이 공교육을 알차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과교실제 실시와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알찬 공교육을 기대합니다." **홍석현**

구제역 대책으로 2차 오염 없었으면

"구제역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를 비롯해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2차 오염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한다는 말보다는 하루빨리 그 방안이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정**

이 기사, 아쉬워요

송혜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었으면"

'지난해 사교육비 첫 감소' 기사에서 사교육비가 줄은 구체적인 원인은 방과후학교라고 했는데,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황과 관련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올해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안이나 계획도 함께 알려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1988년생, 경기 광명시 하안1동)

윤희정 "사교육 경감 현장 속 학생 얘기 있었으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찾아서' 기사에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터뷰가 없어 아쉽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방과후교육과 사교육 감소의 관계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1985년생,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김은경 "예산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있었으면"

'한·EU FTA, 대한민국 비준만 남았다' 기사는 FTA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FTA협상이 주는 피해 업종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피해보상 금액으로만 소개하기보다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뤄 줬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1988년생,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강윤지 "한국적인 디자인 관련 기사 읽고 싶어"

'한류를 상상하라, 한류를 디자인하라' 기사는 제목과 달리, 디자인의 한류라기보다는 젊은 한국인 디자이너의 감각을 칭찬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기사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1988년생,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알립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대상자를 추천해 주세요

대한민국예술원은 제56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을 맞아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았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이다. 단, 예술원회원 및 기 수상자는 제외한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

접수 기간 | 3월 9일~4월 8일(평일, 09:00~18:00)
시상 부문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 영화 · 무용(4개 부문별 1명씩)
후보 추천 | 후보자 추천권자(기관 및 개인)
-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예술단체의 장
-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제출 서류 | 추천서 1부, 경력증명서, 저서, 논문 등 증빙자료 각 1부
결과 발표 | 7월 1일
시상 내용 | 상장, 메달 및 상금(부문별 5천만원)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진흥과 ☎ 02-3479-7232~4 www.naa.go.kr

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병무청은 나라지킴이 3대 가족을 찾는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는다.

신청 자격 | 3대 모두 현역의 병, 부사관, 장교 복무를 마친 가문
신청 기간 | 3월 7일~4월 6일(1개월간)
제출 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명문가 찾기' 배너에서 내려 받아 사용
신청 방법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FAX, 우편
표　　창 | 최고의 병역명문가 20가문(대통령표창 외 상금 수여)

병무청 ☎ 1588-9090, 042-481-2702~6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3월 1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굿거리, 살풀이 같은 무속 음악의 한 가지. 육자배기의 특징을 살린 산조(散調) 기악곡으로, 호남 지방에서 많이 부른답니다.
3.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금품 등을 대가 없이 내놓음.
4. 트리폴리, 카다피, 내전, 교민 구출….
6. 긴 방학도 끝나고, 신입생도 들어오고, 한 학년씩 오르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7.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 감똑.

세 로

1. 시아버지.
2. 3월 9일자로 100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 주간지. 앞으로도 더욱 친근히 다가가는 정책 · 생활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3.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겨우내 움츠렸던 동식물들이 봄을 맞아 ○○○를 활짝 펴기 시작했다."
5.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부르는 인칭 대명사.
8.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 "같은 ○○끼리 어울려 놀다."

〈Weekly 공감〉 98호(2월 2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미풍양속 **2** 저탄소 **4** 이집트 **6** 글로벌 **8** 목표
세로 **1** 미소 **3** 탄탄대로 **5** 집사람 **6** 글쎄 **7** 벌목

〈Weekly 공감〉 9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고찬호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김현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김현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박미랑 · 부산시 동구 수정2동
이혜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⑯

스마트기업으로 가는 길

조봉한 하나아이앤에스 대표

연합

보통 스마트 하면,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마트폰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고 내 생각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 중심이라고 하죠. 저는 이러한 기술을 '인문학적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인문학적 기술일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셜 미디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하드웨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만져지지 않아요. 비유를 하자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그 안의 글들 때문이죠. 즉, 글이 소프트웨어라면 책의 종이 재질, 잉크,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현재 25만 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 일정관리, 책, 음악,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단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요, 이것을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을 띠고 있습니다. 취미가 같으면 동호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매체를 만들 수 있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입니다. 모든 소셜 미디어를 합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저는 지금 시대를 '신계몽주의'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간단합니다. 인문학적 기술로 무장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문학적 통찰을 가져야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 역시 수평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 아이디어에 대한 순환이 빨라집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마리북스 간)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장형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 사교육에 대한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이 활발해지면 사교육비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2. 신한류 바람이 정말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아요. 아이돌부터 영화, 요리, 디자이너 등 여러 분야로 뻗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의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치고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3.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와 전망,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인터뷰를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1. 지난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공감여행 제주오름' 기사를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 오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뿐만 아니라, 기사를 읽는 내내 오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유행으로 지나갈 줄 알았는데 신한류의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디자인, 게임, 한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 열풍이라니 놀랍습니다.

3. 지역의 다양한 축제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기사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코너를 통해 함평 나비축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색축제나 문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0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 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구제역 2차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오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매몰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질·환경·토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40개 민관조사팀이 매몰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간 환경전문가 감시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막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를 뽑아내 멸균 소독한 뒤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질 관리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4000여 곳의 수질을 검사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민관합동 TF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매몰지 먹는물 걱정 '뚝'

정부가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전국의 7개 시·도, 72개 시·군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천89억원을 지원한다.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매몰지 인근 지하수 사용 학교에 대해서는 매달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민간기업인 대교문화재단이 전국의 가축 매몰지 인근 15개 지역에 해양심층수 26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민들의 먹는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 구제역 발생 지역의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가운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식수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에 총 3천89억원(국비 2천1백63억원, 지방비 9백26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를 보급한다고 3월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축의 대량 매몰과 이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설치비는 2010년말 17개 시·군에 이미 지원한 8백57억원과 함께 추가로 2천1백63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모두 3천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게 됐다.

상수도 설치비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매몰지로 인하여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상수관로 2천5백34킬로미터 ▲물탱크 역할을 하는 배수지 27개소 ▲배수지 조성 여건이 안되는 곳에 만들어지는 가압장 69개소를 신설하게 된다.

식수오염 우려 지역에 우선 지원키로

지자체별로는 경기 1천92억원, 경북 4백72억원 등 9개 시·도, 72개 시·군이며, 국비 2천1백63억원은 환경부 기정예산 5백63억원 및 국고채무 부담 1천6백억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국고채무 부담'이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되 실제 자금 교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원금액 중 매몰지

조선DB

'구제역 피해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가 2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려 많은 시민이 둘러보고 있다.

와의 인접성, 지자체의 시급성 판단을 근거로 시급한 지역에 우선 지원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상반기 중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몰지로 인해 먹는물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 모두에 상수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3~5월 중 현지조사를 거쳐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 중 추가 지원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매몰지 인근 학교 지하수 침출수 오염없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매몰지 인근 학교 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49개 교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 침출수 오염으로 판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몰지 인근 지하수를 이용하는 전국 64개 교 중 1차로 49개 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매몰지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먼(3백~1천2백미터) 나머지 15개 교도 3월 첫째주 말까지 검사를 마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 학교의 지하수를 검사하고, 호우 등으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시로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생수를 공급하는 등 학생들의 먹는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2차 감염'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까지 7개 시·군 15개 매몰지(30개 시료)의 침출수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구제역 및 탄저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 매몰지 4천4백67개소의 10퍼센트 수준인 약 4백60개소(침출수 4백20, 토양 40)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탄저균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탄저균은 일부 토양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으로, 전 세계 각국 토양에서 탄저균은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토양에서 탄저균이 분리된 사례는 캐나다(2001년 1.9퍼센트, 2005년 28.4퍼센트) 남아프리카공화국(3.0퍼센트), 이란(9.1퍼센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규모 조사를 시행했으나 이 조사에서는 2010년까지 한 개의 탄저균도 발견되지 않았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선DB

비가 내리던 2월 2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구제역 매몰지. 면사무소 직원들이 배수로 확보 작업을 하고 있다.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

"베트남여행 통해 국내 유입으로 추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구제역 종합 질의응답 1차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최근 구제역은 베트남을 여행한 농장 종사자가 전파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됐다"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퍼센트 이상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역학조사 결과 농장 종사자가 베트남 여행 후 구제역 발생까지의 잠복기간 중 아무런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제역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데도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자료집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침입할 수 없어 구제역 감염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해도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소,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도축장으로 운반·도축·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구제역 가축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처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완전한 조치가 시행된 매몰지에서는 유출 우려가 없다. 우리보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영국에서도 매몰로 인한 환경, 보건문제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매몰지의 침출수 처리와 여름철 홍수에 대한 대비,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 오염 방지 등 각 분야별 대책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집은 3월 4일 개설되는 '구제역 종합포털(www.구제역.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제역 종합포털' 사이트를 방문하면 '질의응답 1차 자료집' 등 구제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119로 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 발견 시 119에 신고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되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축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 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 사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면 해당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신고전화와 원스톱(one-stop)으로 연결돼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한 긴급지원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92주년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북한과 일본에 진정성이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북한에 민족 독립과 자존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일본에는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정신을 인류평등으로의 세계 개조를 위한 '세계주의'로 해석하고,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세계와 경쟁하는 G20세대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고 화해·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과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한국은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고, 그에 앞선 지난 1월 1일 신년 좌담회에서도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새해 들어 이렇게 연이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태도 변화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는 전제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남북대화의 의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대북정책 원칙 유지하되 화해 분위기로 진일보' 평가

아직 북한이 지난해 두 번의 도발, 그에 앞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보다는 대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게 이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대화에 방점을 두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뉴시스

가 그동안 경색 국면이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적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이 대통령은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일외교 기조에서 직접적으로 식민지배 시대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19세기 이래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면서 "지난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통해 한일병합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인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는 대일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 언급한 것은 당장 3~4월 중학교 검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 출판사의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양국 관계는 또다시 갈등 관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가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사과가 전제될 경우 양국이 앞으로 펼쳐질 동아시아 시대에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3·1정신은 세계주의… G20세대가 주역"

이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을 세계주의라는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했다. 기미독립선언문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개조의 큰 이상을 표출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룩한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국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뚝 성장한 것과 연결지었다.

특히 세계와 경쟁하고 일 자체를 즐기는 글로벌 청년 리더군을 G20세대로 명명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G20세대가 3·1운동의 세계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선진일류국가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얘기다.

"새롭게 각오 다지겠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세대는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가 꿈이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제일을 향해 겨루는 패기 넘치는 세대"라면서 "스포츠,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2월 25일)과도 맞물린 이번 기념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소요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진 지금 상황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저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는 데 국민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공정사회와 관련해서는 "선진 일류국가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서민을 잘살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집권 4년차를 맞아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을 뒤로하고 오로지 친서민 중도실용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새겼다. G

글·안용수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기획재정부 '찾아가는 예산실'

"신선하다" "달라졌다" 부처 한 목소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찾아가는 예산실' 프로그램이 화제다. 각 부처를 찾아가 정책 방향을 경청하고 공감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각 부처는 '환영'의 손을 들었다. 권위적인 예산실이 '친절한 예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일러스트·이우정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달라졌다.'

최근 관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고 있다. '권위적'이라는 평판을 들어온 예산실이 자세를 낮췄기 때문이다. 시각 전환의 계기는 예산실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산실' 프로그램이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연초부터 바쁘게 돌아간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다. 정부 36개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향후 5개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실은 이 계획서를 검토해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중기 재정 계획에 앞서 예산실은 각 부처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종전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실을 찾아온 반면 올해는 예산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설명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35개 부처 가운데 25곳을 방문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설명이다.

"부처와 예산실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부처는 더 많은 예산을 원하고 예산실은 전체를 보면서 이를 조정하죠.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 '찾아가는 예산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부처와 예산실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산실'은 크게 두 가지를 바꾸려는 시도다. 김 실장은 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의견수렴 방식이 변화했다. 부처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더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고객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산당국과 부처 간 신뢰 형성의 출발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예산 협의의 내용이 달라졌다. 개별 사업 위주에서 '정책 방향과 핵심 이슈'에 대한 협의로 전환됐다. 개별 사업에 앞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부터 협의를 한 것이다. '총론'을 먼저 정하고 '각론'을 살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예산실'을 맞은 부처들은 한결같이 '놀랍다' '신선하다'며 반겼다. 예산실이 부처를 방문한 것도 처음이려니와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도 반갑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실장은 "이런 협의 방식은 처음이어서 낯설어하기는 했지만 정

책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였다"며 "예산당국과 각 부처 간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탈빈곤'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스스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복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다시 빈곤층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수급을 계속 받는 것보다 수급을 받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해지도록 '급여유인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찾아가는 예산실' 프로그램은 예산당국과 부처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달청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예산실'.

보육 문제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큰 틀에서 보육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시됐다. 출산을 장려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교환했다. 특히 페이고(Paygo·Pay-As-You-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페이고 원칙이란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는 등 재원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준칙의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문화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문화바우처는 지역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7만명에서 올해 163만명으로 수혜대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2011~2015 중기 예산 요구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2011~2015 요구 (A)		309.1*	351.3	370.7	391.8	411.7	7.4%
2010~2014 계획 (B)	292.8	309.1*	324.8	337.7	353.0		4.8%
계획대비 추가 요구 (A-B)			+26.5	+33.0	+38.8		

단위 조원 *국회에서 확정된 2011년 예산 기준

일자리 통한 빈곤 탈출 방안 모색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지원은 물론 민간과 기업의 기부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나눔문화를 활용해 보자는 아이디어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마련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경리와 회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은 여성은 10만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51퍼센트나 증가했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이후의 축산정책을 공유했다. 무엇보다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함께했다. 축산업 선진화 등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산실? 때론 악역도 담당해야 합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다. 예산편성의 방향이 곧 국정운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찾아가는 예산실'을 진두지휘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소신도 맥을 같이한다.

한용환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82년 행정고시·입법고시 합격. 95년 재정경제원 과장.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2006년 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재정기획단장. 2008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2009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1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예산은 국정운영 방향하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입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거듭 강조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찾아가는 예산실'은 이런 김 실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예산실장이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직접 부처를 찾아가 해당 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토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낮은 자세로 부처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보자는 취지다.

'찾아가는 예산실'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각 부처 반응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산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 방향하에서 세부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각 부처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부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해하겠다는 자세로 직접 찾아갔던 것입니다.

부처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개별사업보다는 그 부처의 정책방향부터 토론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산실 입장에서는 내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각 부처의 이해를 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처에서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산당국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서민희망 예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11년도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예산 규모는 86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총지출 대비 비중 역시 28.0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전년에 비해 6.3퍼센트 증가한 액수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인 5.5퍼센트보다 높았다.

내용 면에서도 특징이 많았다. 정책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

"복지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서민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문인 보육, 아동 안전, 교육 및 문화, 주거 및 의료 등 4개 과제와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개 과제를 더해 8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문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집중'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모두 1백1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전년 대비 3조원을 증액한 32조1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육,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보육' 부문에 대한 증액이 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20.4퍼센트나 증가한 3조3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높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서민·중산층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의 증액은 피할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다. 복지를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은 없을까.

복지예산 증액이 결국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은 어떤 상태로 보시는지요.

"우리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폄으로써 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수준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의 개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이런 명제하에서 정부는 2013~2014년 중에 균형재정을 확실히 달성할 것입니다. 세입기반 확충, 지출생산성 제고, 국가채무관리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재정건전성이 양립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정건전성 유지'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재정 당국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서 복지부문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시키는 '일자리 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복지, 지역사업 등 예산요구는 계속 많아지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의 균형자 역할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예산을 요구하고 모두 자신들의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실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예'보다는 '아니오'라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전체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실은 악역도 주저 없이 담당해야 합니다. 워치독(Watchdog)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번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마지막 해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2012년은 예산을 편성하기 아주 어려운 해입니다. 복지논쟁이 크게 일고 있고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만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꿔 보면, 평범한 해보다 올해처럼 도전과제가 많은 어려운 해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큰 행운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을 예산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장바구니 물가 반드시 잡는다

신선식품·석유제품 모니터링 강화… 학원비 편법인상 단속도

정부는 신선식품, 석유제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불안 소지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급안정·관세인하·불공정거래 감시강화·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매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해 불안요인 및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비상 물가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정부는 경기·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를 2010년 −2.7퍼센트에서 올해는 −2.0퍼센트로 줄이고, 재정 조기집행 비율을 2010년 61퍼센트에서 2011년 57퍼센트로 축소하는 등 재정을 긴축해서 운용하려 한다.

정책금리의 경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 인상됐다. 2010년 7월 2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올렸고, 그해 11월에는 2.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 1월에는 2.75퍼센트가 됐다.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1천1백48원에서 지난 2월 현재 1천1백18원으로 약 2.6퍼센트 하락했다.

미시적으로 정부는 주요 불안요인별로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의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안정의 경우 농축수산물이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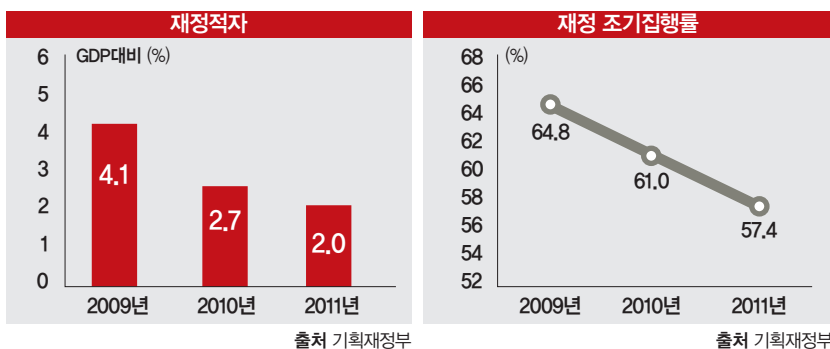
공급확대·관세인하 등 대책마련 추진

배추, 마늘 등은 수입물량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관측결과를 토대로 봄배추 계약재배물량 1만5천여 톤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 한파 피해로 2010년 월동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퍼센트 감소해 4월 봄배추 출하 전까지 공급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축장 폐쇄조치를 완화한다. 폐쇄 도축장 36개 중 30개를 해제하는 것이다. 돼지고기, 고등어, 분유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할인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 생필품 할인판매를 알리는 '착한가격' 게시판이 매달려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은 무관세수입 확대로 공급 정상화·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삼겹살은 무관세수입을 1만 톤에서 6만 톤으로 늘리고 분유는 9천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린다.

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금년 상반기 중 총 9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해 원가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서민생계비 및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24개 품목을 추가한 것인데 신규 인하 종목으로는 버터, 치즈, 감자분, 달걀가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경쟁적 가격인상 및 담합소지 점검·대응을 한다. 단기대책으로는 관세인하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동조편승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감시를 늘린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가격공개 확대,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주요 생필품의 티프라이스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80개에서 1백 개로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폰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을 늘릴 예정이다.

독과점 개선할 석유·통신 태스크포스 운영

티프라이스(price.tgate.or.kr)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48개에서 올해는 우유, 세탁기, 운동용품, 속옷, 기저귀, 부엌용구 등 50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지역별 주요물가수준도 공개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시 지역별 주요품목 물가동향을 비교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한편 진입규제 개선, 독과점시장 분석 등을 위한 공정위 역할도 강화한다. 상반기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세율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시장경쟁 촉진의 경우 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석유·통신 태스크포스(프로젝트팀)를 운영한다.

석유제품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가격정보 공개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실태 점검 및 단속도 실시한다.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통신비 지출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스마트폰 음성통화량 확대, 노인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재판매 사업자 시장진입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방통위, 기재부, 공정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또 청소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전용 스마트요금제를 도입한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전기·가스·우편 등 11종의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시내버스·지하철 등 11종의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반기 중 동결을 유도한다.

경쟁적 가격인상·인플레심리 차단도 주력

대학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금 안정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동결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전국의 1백70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또 대학등록금 책정근거 등 정보공시시기를 개선하고,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교복 공동구매 확대, 교복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통해 교복비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편법인상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소비자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담합, 편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한다.

하지만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예상보다 크고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있는 등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 측면의 물가충격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난 품목의 가격상승 등 상대가격의 조정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인이 경쟁적인 가격인상과 인플레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선식품, 석유제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불안 소지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석유, 원자재, 농산물 등 주요 부문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건 변화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회의를 지속해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부처별 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G

글·서일호 기자

뛰는 물가, 냉철한 소비로 잠재운다

고유가·기상이변 따른 '글로벌 물가위기' 정부·기업·국민 공동노력 해야

소비자물가가 최근 겨울 한파와 구제역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민가계에 대한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부가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당분간 국제유가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4.1퍼센트 상승한 데 이어 지난 2월 4.5퍼센트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도 3.1퍼센트 상승,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근원물가란 농산물(곡물 제외)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특히 공급불안으로 인해 배추·파와 같은 채소, 서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달걀 등 신선식품 물가가 2월 중 25.2퍼센트 상승, 서민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52개 주요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2퍼센트 올라 주부들 사이에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3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물가 상승세가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 증가… 정부, 긴급 물가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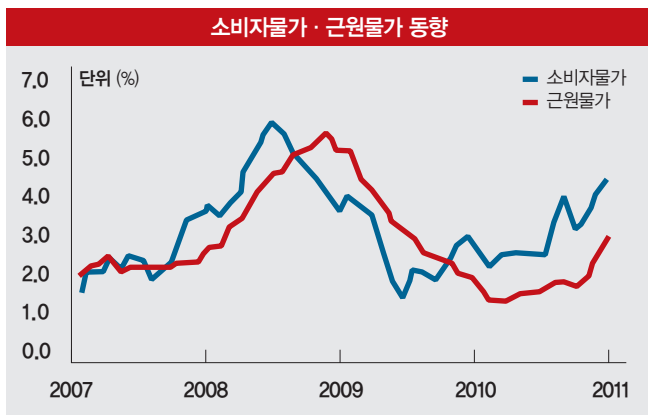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구제역 피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높은 가격 지속 ▲이집트·리비아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제곡물 및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확대를 최근 물가상승의 '3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전년 동월 대비 1.2퍼센트 상승)과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전년 동월 대비 3퍼센트 상승)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물가불안은 국제유가 급등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국 4.9퍼센트 ▲브라질 6.0퍼센트 ▲인도네시아 7.0퍼센트 ▲영국 4.0퍼센트 등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선진국 모두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조정했으며, 세계식품가격(유엔 식량농업기구 식량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도 배럴당 1백10~1백20달러까지 상승 예상

윤 장관은 이날 "최근의 물가상승은 주로 공급불안에 기인하지만 외식비와 같이 소득증가 등에 따른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여서 대내외 물가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원가부담이 늘어난 품목의 경우 가격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러한 불안요인이 경쟁적인 가격인상과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연결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생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년 동월대비 **출처** 기획재정부

지난 1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모습.

당분간 고유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절실하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에서 팔리는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가 모두 2천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일부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개인서비스 요금 가운데 외식비가 재료비 상승과 일부 업체의 '편승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1퍼센트 ▲지난 1월 2.5퍼센트 ▲지난 2월 3.5퍼센트 등으로 최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구제역과 기상 여건이 개선돼 농축수산물 공급이 정상화되는 등 일시적인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은 앞으로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정세의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석유공사와 골드만삭스 등은 중동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백10~1백2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고용·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미시적으로는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물가안정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해외식량기지 건설, 에너지 수요관리 등 미래 대비책도 마련한다.

특히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에너지 가격은 '특별관리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28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기존의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는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정해진다. 지식경제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초과한 지난해 12월 29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 에너지 부문의 대외의존도는 사실상 1백퍼센트에 이른다. 2010년 우리의 총수입 규모 4천2백57억 달러 가운데 에너지 수입액은 1천2백16억 달러(28.6퍼센트)였다. 국내 에너지 소비를 10퍼센트 줄일 경우 약 1백20억 달러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2분기 이후엔 소비자물가 안정될 듯

윤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물가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최근의 유가급등 등 공급부문 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단기간 내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든 국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듯 이번에도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가계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년 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었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물가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의 '삼위일체' 노력이 절실해진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에너지 절약 '도전! 5백만원'

정부, 전 국민 대상 1만 가구 선정해 포상…옥외조명·광고물은 심야 강제소등

조선DB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발맞춰 롯데마트 서울역점 식품코너에서 한 직원이 진열냉장고 형광등을 끄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비아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시책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2월 21일 이후 3월 3일 현재 배럴당 1백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주의 단계에서의 조치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꼭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지만 그 밖의 분야는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 옥외조명의 소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 조명(26.7퍼센트)은 난방(30퍼센트) 다음으로 에너지 사용이 많은 부문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한다. 가로등은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의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의 조명 사용도 제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은 심야 시간대에 강제 소등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옥외조명시설은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평시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송 부문에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한다.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상인 밀집지역 LED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백억원을 투자해 영세상인이 밀집한 지역의 간판을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 나간다. 에너지 사용을 일정 비율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영한다.

포상금 제도도 시행한다.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를 선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력과 가스, 난방에너지의 연간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가구(4천 가구), 저소득층(1천 가구), 공동주택(5천 가구) 등 1만 가구를 선발한다. 포상금은 개별가구와 저소득층은 최대 5백만원, 공동주택은 단지 단위로 최대 1억원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해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와 유통업 이익단체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3월 3일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갖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G

글·변형주 기자

에너지 위기 단계 발령과 단계별 조치

경계단계	발령 조건 (두바이유 가격 기준)	조치내용
관심	5일 연속 90달러 이상	• 대형건물 실내 난방온도 섭씨 18도로 제한
주의	5일 연속 100달러 이상	• 기념탑,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외 소등 • 유흥업소 새벽 2시 이후 소등 • 공공수송 5부제 강화
경계	5일 연속 130달러 이상	•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심각	5일 연속 150달러 이상	• 공무원 자가용 운행 금지 • 골프장, 대중목욕탕 영업 시간 단축

자료 지식경제부

기 획 특 집

‘공감’을 위한 우리 사회의 ‘100’

요즘 ‘공감(共感)’이란 말 많이 듣습니다.
책 제목이며 방송프로그램 이름까지 ‘공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부부 공감’ ‘십대 공감’에서처럼 소통이 강조되기도 하고
‘공감의 시대’ ‘공감의 힘’에서는 묵직한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다른 이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 나 역시 그렇다고, 같은 울림이 이는 감정이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제호에 ‘공감’을 담은 〈위클리 공감〉 100호 발행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두들겨봅니다.
톡톡,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감하러 갑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인생 100세 맞춰 '삶의 질 끌어올리기' 온힘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1백세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백만 가구 일자리 연계 등 시스템 구축과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월 1백번째 회의를 가졌다.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의 선진화' 추구가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0세 이상 일자리 마련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들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고 덧붙였다.

신년연설 일주일 후인 지난 1월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에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라"면서 신년연설 후속 조치와 관련, '5퍼센트 성장, 3퍼센트 물가안정'과 '100세 시대 종합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30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은 '삶의 질의 선진화' 추구가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한편 서민층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위기에 빠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백만 가구 발굴해 민간자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해 주고 기초생활급여 압류조치를 금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도 추진한다.

'삶의 질 선진화 추구'가 핵심과제로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시혜적 성격이 강한 무차별적 복지를 배격했다.

복지의 요체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노년층은 물론 서민층, 청년층까지 약자에 속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실한 것은 일

자리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35만명이 참여한 희망근로사업을 펼쳤다. 희망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단순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 생산적이고 시장 지향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30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모임이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 전문가들이 모인 '지역 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이하 100인 포럼)'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 전국 순회

100인 포럼 출범식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 주도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면서 "100인 포럼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인 포럼은 출범 후 영남권(10월 27일), 호남권(11월 25일), 충청권(12월 6일)을 순회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 청년, 퇴직자, 주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매일 7만8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천2백 개의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3백39억원을 투입, 지난해까지 3천3백23개의 청년기업을 탄생시켰다. 청년 미취업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 시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토록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 도와 시·군에 일자리전담조직을 설치해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24개 우수기관에 재정 인센티브 2백억원을 제공했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은 경제 활성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대외경제정책은 중요하다. 대외 경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14일 열린 1백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의미가 깊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해외진출,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정책을 의논하는 회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1백번째 회의는 2001년 설치된 후 10년여 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7차례가 열려 58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흥경제권과의 경협전략을 수립하고 페루·EU·미국 등과의 FTA를 마무리하는 등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상방향을 수립해 왔다.

원전·고속철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희유금속(稀有金屬·rare metal)·곡물 등 자원협력 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협상전략 수립 및 신규 FTA 추진국 발굴 등 각종 통상현안과 성장동력 확충, 경제회복 공고화, 경협 확대 및 국격제고 등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세계시장을 우리의 성장기반으로 계속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흥경제권 국가들과의 적극적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오는 위험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 해외자원 개발 등에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육성과 개발을 위한 자금이다.

통상현안 점검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1백회 돌파

중소기업 지원, 녹색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해외자원 개발 지원 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10월 28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유재한)는 2015년까지 1백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정책자금 1백조원 공급'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비전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10년 정책자금 6조원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액은 8조1천억원이었다. 올해 목표액도 9조원이지만 실제 공급액은 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비전은 실현되고도 남을 성싶다. 우리 경제의 가능성이 그렇듯이 말이다.

'100세 시대'의 1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미래의 암울'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실천하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숫자 '100'은 그 '미래의 암울'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삶의 질의 선진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G

글·김성동 기자

피부색·말은 달라도 '해피 투게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년 4분기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등록 외국인이 사상 처음 1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거주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으로 '1백만명 돌파'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문화·다민족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합법체류자)은 1백9만2천9백명이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약 1백26만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족 100만, 그들의 자녀는 12만이다. 지난 1월엔 귀화인도 10만명을 돌파했다. 그야말로 다문화·다민족 시대다.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계기는 1993년 산업연수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본격 증가한 시기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다. 이유는 그동안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 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함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다문화 존중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은 물론 같은 해 12월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6천1백2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운영

2009년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에선 10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를 선정해 다문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5대 역점사업 분야의 하나로 '다문화의 포용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가족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다.

송파구청

지자체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파구 거여보건지소에서는 2월 26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녀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정서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출입국 심사, 초청, 국적 및 귀화, 출입국사범처리 등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부터 체류, 국적취득, 증명·발급 등 전 과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다. 센터에선 특화사업으로 합동결혼식도 진행하고 있다.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2·4주 목요일을 '결혼이민자 지원의 날'로 정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글로벌센터, 이주민센터 등 지역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기관이 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나 지방문화원 등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강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난해 1백59곳에서 올해 2백 곳으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수 및 사업 실적에 따라 53개 센터에 종사자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지연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언어발달지도사를 2백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을 위한 언어영재 교실'을 7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로 1백 개 센터에 개설한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해 가정방문을 통한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의 자녀생활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 자녀생애주기별(임신·출산기, 유아기, 아동기)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한국인과 재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에게 한국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는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4개월 과정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생활 안내와 통·번역지원, 각종 정보 등을 9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영어)로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도 개설한다. G

글·박근희 기자

■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원 '간편'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와 모국어가 능통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로 통·번역 서비스 실시. 1577-543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 가능. 방문예약,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법무부 민원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IT 분야의 특허가 급증하며 한국은 세계 4번째로 특허 1백만건을 돌파한 특허강국이 됐다. 특허 증가는 GDP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제조라인.

세계 최단기간 '특허 100만건' 넘었다

한국이 세계 네번째로 특허 1백만 건을 돌파했다. 세계 최단기간의 기록이다. 특허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 정부는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관차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다이아벨'이란 회사에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2008년 3월 출원한 특허가 드디어 등록된 것이다. 특허청도 환호를 했다. 이 회사의 특허를 기점으로 한국은 특허등록 1백만 건을 넘어선 특허 강국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허 1백만 건 고지를 밟은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4개국뿐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서 비롯되고 기술경쟁력의 핵심은 특허에 있다. 특허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은 십중팔구 성장가도를 달린다. 1백만번째 특허의 주인공인 다이아벨도 그렇다.

95년 설립돼 겨우 15년가량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무려 1백건 가까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9년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척도로 불리는 '매출 1천억원'을 달성했다.

한국의 특허 1백만 건 돌파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사건이다. 먼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도 밟아 보지 못한 고지다. 도달 기록도 가장 짧다. 미국이 75년, 일본이 97년 걸린 데 비해 한국은 62년 만에 달성했다. 20세기에 특허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1백만 건을 돌파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의 특허는 21세기 들어 급증했다. 전체 약 70퍼센트인 69만 건이 2001~2010년의 10년 동안 등록됐다. 이는 한국이 세계 IT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기간과 일치한다.

21세기 들어 IT 분야 특허 급증

이 기간 동안 등록된 특허의 52퍼센트도 IT 분야에 몰려 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한국이 자랑하는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개발의 봇물이 터진 것이다.

특허청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IT 분야 민간기업들의 R&D 투자액이 연평균 12퍼센트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특허등록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특허경쟁력은 경제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허가 늘수록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수출이 늘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GDP도 자연스레 성장궤적을 그릴 수 있었다.

조선DB

안재현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특허등록 1백만 건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달성한 미국, 일본 및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특허등록 1백만 호 달성 시기를 전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과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며 "우리나라도 산업분야와 개별기업 측면에서 모두 국제적인 위상과 기술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기업들의 위상은 특허등록이 급증한 최근 10년 사이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표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약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된다.

2009년엔 OECD 회원국 중 3개국에 불과한 플러스 경제성장국의 일원이었고 2010년에는 OECD 2위인 6.1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은 2009~2010년 2년 연속 4백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신기록을 연거푸 경신했다. 올해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유력시된다.

세계시장을 호령할 기업을 더욱 육성해 경제성장의 기관차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백개를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미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기업이나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한마디로 '주마가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은 주문형으로 진행된다. 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 컨설팅 등 기업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특허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2개 지원 기관이 연계한다.

이 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시책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올해 목표는 30여 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향후 기업정책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적 기업 3백개 집중육성

특허청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01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백개의 '특허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까지 1천2백억원을 투자해 4천6백여 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 4백 곳을 스타특허기업으로 선정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스타기업은 핵심특허기술을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특허청의 특허스타기업 프로젝트는 최근 3년간의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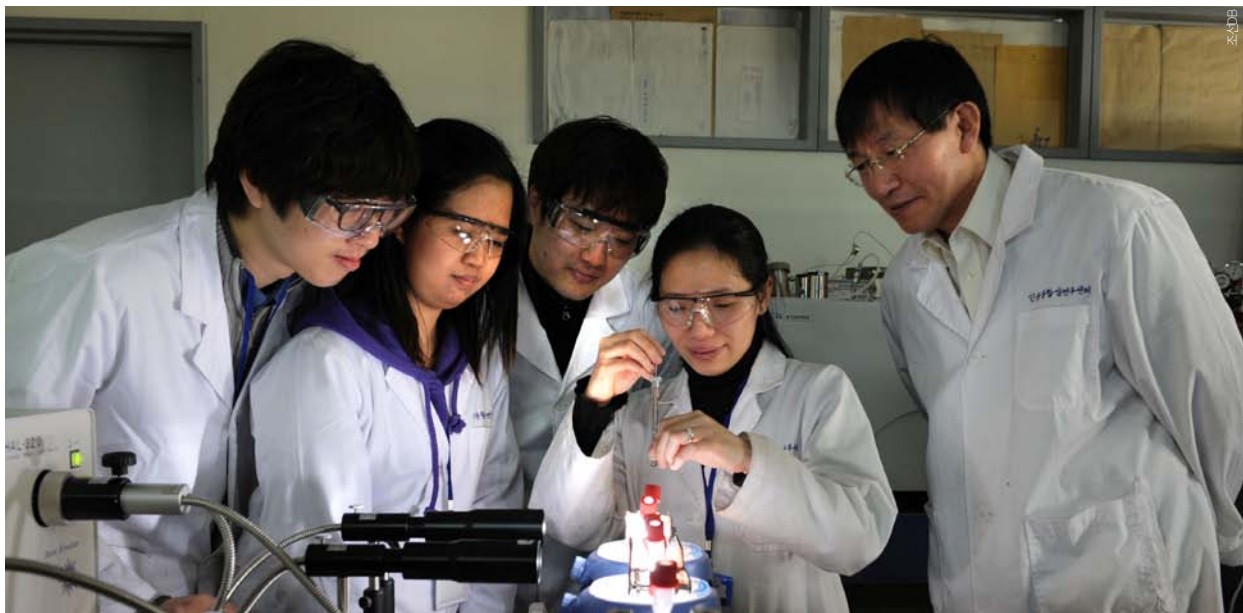
특허스타기업을 선정해 지원한 결과 특허출원은 13.6퍼센트, 매출액은 9.7퍼센트, 고용은 9.9퍼센트 향상돼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지식재산 경영실적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신흥시장 개척, 신무역분야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국가 이미지를 활용한 수출확대 등 수출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중점추진과제

분야	주요 내용
신흥시장 개척	• 고위급 채널 등을 활용한 산업협력 강화 •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강화
신무역 분야 개척	• 신성장동력 수출산업화 • 조달시장 공략 강화 • 방산 분야 수출 지원 역량 강화 • FTA 시장기회 극대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중소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 채산성 개선
국가이미지 활용한 수출	• 한류 마케팅 확대 • G20으로 높아진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

자료 지식경제부

서강대학교 한국인공광합성연구센터 연구진이 인공 광합성을 위한 촉매 반응 실험을 하고 있다.

‘제2의 에디슨’들이 무럭무럭 자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다. 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발표한 ‘2010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3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재정, 고용 등과 아울러 과학 및 기술 분야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바텔연구소 측의 조사 결과에서도 2010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5위권 안에 들 만큼 높이 평가됐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대학, 출연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전년도에 창출한 우수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우수한 성과들을 공유하고 과학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수성과 100선’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전년도에 성과를 창출한 16개 부·청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16개 부·청별에서 우수성과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기초·인프라 등 5개 소위원회별로 총 130건(1.3배수)을 선정한다. 이를 다시 총괄위원회에서 부·청별 연구비·과제 수, 접수건수, 전년도 선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우수성과 100’을 가려낸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거쳐 가려내

세부평가는 혁신성·과학기술수준향상기여도·전략적 성과의 우수성 등 ‘성과의 우수성’과 사업화 가능성·공공복지 향상 기여도·지식증진 기여도 등 ‘성과의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2010 우수성과’ 중 주요 성과들의 부·청별 분포를 살펴보면 16개 부·청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식경제부(13건), 농촌진흥청(11건), 국토해양부(8건), 환경부(6건)가 뒤를 이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R&D)비 투자액은 37조9천2백85억원으로 세계 7위 규모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작년 10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개최한 '과학기술 미래포럼'. 1999년 이후 10년 만에 기획된 것이었다.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11.2퍼센트 늘어 52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련 분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도 정부 R&D 예산 현황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2011년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동향과 전망'을 근거로 추정한 규모다.

총 52조5천억원 중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71.7퍼센트(37조6천억원)이며 정부 투자는 28.3퍼센트(14조9천억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정부 R&D 투자 부문은 2010년에 비해 8.7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가 R&D' 투자 최초 50조원 돌파 예상

최근 4년간(2008~2011년) 연평균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10.3퍼센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 투자 가운데 정부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속한다.

민간부문의 R&D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2009년간 잠시 증가세가 둔화했다. 2010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회복하고 201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2.5퍼센트로 2006년(14.5퍼센트) 이래 최대의 증가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연구개발 투자계획이 많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R&D 투자 증가는 인력 채용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년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은 3만2천5백26명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올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GDP 대비 3.57퍼센트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2012년까지 5퍼센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의 R&D에 투자할 경우 20퍼센트 세금감면을 해주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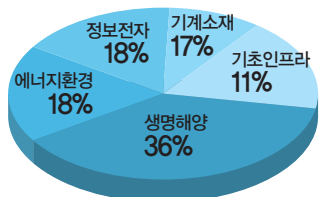
사례집 발간·배포해 국민 이해 도와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선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정과 함께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연구성과의 핵심내용, 기술 파급 효과, 연구과정에서의 에피소드, 연구자에게 남기고 싶은 유익하고 진솔한 이야기 등을 한데 묶은 것이다.

국회 및 공공기관과 주요 도서관, 연구자 등에 배포하며 일반국민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우수성과 100선 선정현황 검색 및 성과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201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기술분야별 현황

2011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구분	민간	공공연구기관	학계	합계
민간	36.66	0.39	0.59	37.64
정부	2.20	7.74	4.95	14.89
합계	38.86	8.13	5.54	52.5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조원

조선DB

2010년 3월 2일 마이스터고 개교식에서 각 학교 학생 대표들이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교 동판을 들고 있다.

맞춤형 인재 교육으로 기술명장 키운다

마이스터고는 고교 졸업 후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다. 정부의 마이스터고 50개 육성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1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학교는 2012년 문을 열 계획이다.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와 채용 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그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학교 점수나 학벌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전문인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윈도를 개발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스터고(高)가 바로 이처럼 창의성 넘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전국 마이스터고 개교(開校) 및 입학 축하 연설에서 한 말이다. 마이스터고는 최첨단 시설과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으로 기술명장(마이스터, Meister)을 길러내는 학교다. 중견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만든 학교로, 한마디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유망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의 취업률도 1백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나서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마이스터고는 현재 21개 학교가 운영 중이며, 앞으로 50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입학생은 학비면제와 기숙사 생활, 실무 외국어 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군입대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가능

이러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몸값이 더 높아지게 생겼다. 삼성전자가 마이스터고 학생 1백명을 미리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삼성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맺은 약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1학년생 1백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남은 2년 동안 학업보조비 5백만원을 지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 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외국어고) · 국제전문 인재 양성 (국제고)	· 예술인 양성 (예술고) ·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급받고, 방학을 이용해 삼성전자 지역별 사업장에서 인턴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마이스터고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조사에 의하면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와 채용 약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말까지 1천1백45개 업체가 1천8백2명을 채용하기로 마이스터고와 약정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8월 6백41개 업체, 5백42명의 채용 약정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중점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작년에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 매년 3천6백명씩 입학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기계공고 등 조선·기계 분야에 특화된 5개 학교는 조선협회와 협약을 맺고 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출신들을 교직원으로 폭넓게 채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21개교에서 72명이 산학(産學) 겸임 교원으로 임용됐다. 기술명장 등 현장 전문가와 학생들을 1:2 비율로 연결해 개별 지도를 받게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울산마이스터고). 개방형 교장 공모도 확대해 21개교 가운데 작년 말까지 17개교가 교장을 공모로 뽑았다. 산업체 전문가 출신이 교장으로 부임한 곳도 5곳에 이른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개교행사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도 100개 건립 목표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지자체(地自體)와 협력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학생 취업 확정자는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 시 특기분야에 근무할 수도 있다. 또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은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천여 개의 고등학교 중 일부를 보다 특색있고, 다양성을 가진 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다.

'고교 다양화 300'이란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학교 3백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기숙형공립고 1백50개 ▲자율형사립고 1백개 ▲마이스터고 50개가 이에 해당한다.

기숙형공립고는 주로 농어촌,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이 지역의 학생들이 도시에 가지 않고도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단위 지역에 있는 공립고를 중심으로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기숙형공립고 1백50개 지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자율형사립고는 기존 학교보다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학교가 학생선발과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형사립고는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책무도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현재까지 50개가 지정된 상태다. G

글·이상흔 기자

2010년 11월 20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서 배우 최수종씨와 '100인 이사회' 회원들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을 봉사와 기부로 갚아요"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봉사단체다. '도덕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친목을 다지고,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기부, 선행, 봉사의 씨앗을 심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2월 25일 오전 8시 서울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봉사단체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이하 100인 이사회) 이사장인 최수종씨는 부인 하희라, 김흥수, 남능미, 왕지혜씨 등 연예인 10여 명, 대학생 40여 명과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다. '100인 이사회'의 이사인 탤런트 남능미씨는 종합복지관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창신동의 독거노인댁을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방문했다.

남씨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부족하나마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 식사도 전하고 건강도 확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봉사"라고 밝혔다. 남씨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연이어 시작된 무료 점심 급식에서 노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국노인종합복지협회에서 열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제2차 업무 협약식'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100인 이사회' 이덕화 명예회장이 '독거노인 사랑잇기' 전화시연을 했다.

최수종 "힘들 때면 더 힘든 사람들 생각"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민간과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원이 1 대 1 안부 확인 전화를 드리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해

보살펴 드리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를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 '100인 이사회'는 방학 중 결식아동들을 위한 뜻깊은 봉사도 했다.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동구 해공체육문화센터에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결식아동 방학교실 '희망나눔학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0인 이사회'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봉사단체다. '도덕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등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친목을 다지고,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기부, 선행, 봉사의 씨앗을 심고자 지난해 10월 25일 발족했다.

이날 창립 대회에는 배우 하희라·오윤아·이다인·남능미·임호·박재훈·박상욱, 개그맨 임혁필·이광채·김병만, 가수 박상민·김창렬·김형준 등 연예인 59명이 가입했다. 이사장은 탤런트 최수종씨가, 명예회장은 이덕화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이 맡았다. 원로 배우 신영균·이순재씨는 고문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최수종씨는 "얼굴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직접 일을 하고 싶었다"면서 '100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대중문화예술인들 "얼굴이 아닌 직접 봉사하고 싶어요"

"배우들이 NGO 홍보대사는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최근엔 재능기부 영역도 넓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연예인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 그 사랑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최씨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가난과 질병, 소외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기부는 시민들의 사회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참석 회원들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배우 남성진·박은혜씨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낮은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안고 공손히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5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했던 신영균씨는 후배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돌려주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장현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총재,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본부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사단법인 설립 신고를 마친 '100인 이사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공동 출범한 대학생봉사단 '봉즐(봉사는 즐거워)'은 현재 서울시내 10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홍익대) 1백3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인 이사회'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종로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김흥수씨.

각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즐은 학교별로 지역사회에서 상설봉사를 전개하고, '100인 이사회'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즐'은 창립대회 이전부터 각 학교별로 이미 자체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놀토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도 계획 중이다. 또한 회원들이 단체로 헌혈에 참가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도 준비중

'100인 이사회'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활동도 준비 중이다. 기부 기업, 100인 이사회, 수혜 단체가 함께하는 '1:1:1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고용증대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KOICA와 해외원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100인 이사회' 문제갑 사무총장은 "탄탄한 조직력과 체계적 기획을 통해 대중문화계를 아우르는 봉사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인 이사회'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으로 첫 선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독거노인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사장 최수종씨를 비롯, 하희라, 김경식, 오윤아, 김익태, 남능미, 남성진, 박재훈, 배한성, 이광채, 이다인, 임혁필씨 등이 참석했다.

100인 이사회의 대학생 봉사단 '봉즐' 70여 명도 참여했다. '100인 이사회'는 연탄은 집집마다 직접 배달해야 하고 배달된 연탄을 받은 이웃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어 이사들이 체감하는 봉사활동으로 제격이었다고 밝혔다. G

글·서일호 기자

지난 2월 17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주민들이 현지실사에 나선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지나가자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103명의 IOC위원 마음을 잡아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 결정이 1백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0, 2014년 연이어 유치에 실패하며 눈물을 흘린 평창이 이번에는 90퍼센트가 넘는 국민 지지도를 앞세워 그야말로 '삼수도전'에 나서고 있다.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다는 의미의 '뉴 호라이즌(New Horizons)'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평창은 지난 2월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단의 현지실사도 무사히 마쳤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평창은 오는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당당히 "예스 평창!"을 외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개최지 결정을 위해 평창을 방문했던 일부 위원들은 당시 감자와 옥수수밭으로 도면 속에만 존재했던 경기장 건립예정지에 세계 정상급 스키점프타워가 들어선 것에 놀라워했다. 또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경기장으로 이동해 설원을 누비는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직접 둘러보고 경기운영 능력 등을 꼼꼼히 살폈다.

조사평가단은 모든 경기장이 30분대에 배치된 콤팩트한 지리적 조건과 열렬히 환영하는 평창군민들에게 후한 점수를 줬을 것으로 믿는다.

강원도민들, 염원 담아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챙긴다고 밝혀 강원도민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한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 국가적 수치"라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여 가며 정부 차원의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미 두 번의 눈물을 흘린 강원도민들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인 독일 뮌헨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현지실사가 시작된 지난 3월 1일 오후 독일 뮌헨시청 앞에서 환경단체가 동계올림픽 유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지난 3·1절 열렸다. 이날 동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3백만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3·1절 기념 시·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평창은 물론 춘천 강릉 원주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펼쳐진 것이다.

단일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민 3만여 명이 출전, 새봄맞이 레이스를 펼치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다. 이미 강원도에는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동사모)'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달리기대회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동사모 회원들은 물론 세 살 꼬마에서부터 81세 할아버지까지 출전해 대부분 완주를 펼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외쳤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원하는 또다른 스포츠 제전도 열렸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피겨와 빙상경기장이 들어설 강릉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2011강릉ISU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개최됐다.

1993년과 1997년에 이어 세번째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동계올림픽유치지 결정을 1백여 일 앞두고 열려 그 어느 대회보다 열기가 뜨거웠으며 강원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특히 이 대회에는 무게감에서 시니어 대회에 다소 못 미치지만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세계피겨 꿈나무들이 대거 출전해 향후 세계피겨계의 판도를 점쳐 볼 소중한 무대가 됐다. 2005년과 2006년 대회 여자 싱글에서 각각 우승한 일본의 아사다 마오(21)와 김연아(21·고려대)는 이후 시니어 무대에서도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 세계여자피겨를 이끌었다.

국제 규모의 스포츠 축제를 잇달아 개최하고 그 열기를 전세계에 알려 가고 있지만 아직 평창이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다.

평창에 앞서 실사를 받은 프랑스 안시는 실사를 마친 뒤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눈과 얼음, 그리고 당신(Snow, Ice and You)'이라는 슬로건의 안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인프라 및 동계스포츠 저변 등이 이미 세 차례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답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평창이 인천공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등 참가선수 및 관계자들의 이동 경로가 멀어 불안했던 반면 안시는 안시공항 외에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이 차량으로 40분 정도 거리라 접근성도 뛰어나다.

마지막 후보 도시인 독일의 뮌헨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사를 마쳤다. '우정의 축제(Festival of Friendship)'를 슬로건으로 택한 뮌헨은 숙소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최초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에서 동계올림픽까지 열겠다는 꿈도 있다.

IOC 수석부위원장인 토마스 바흐 독일올림픽체육회(DOSB) 회장이 유치위를 이끌고 있고,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피겨 여왕'인 카타리나 비트는 뮌헨이 자랑하는 인적 네트워크다.

경쟁도시 안시·뮌헨 만만치 않아

하지만 193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이자 알파인스키 경기가 열릴 예정인 가미시-파르텐키르헨과의 거리가 멀고, 특히 이 지역 농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은 평창에 위안이 된다. 실제로 뮌헨 현지실사에서 환경단체들이 동계올림픽 유치 반대시위를 벌여 91퍼센트의 지지를 받는 평창과 대조를 보였다.

평창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총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 우리는 올림픽 유치 경쟁이 객관적 조건으로만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아 왔다. 다 잡았던 승기를 단 몇 표 차로 놓친 아픔을 통해 실사 내용보다 IOC 위원들의 표심에 좌우됐다는 것 또한 느꼈다. 외교전에서 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오는 5월 18~1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후보도시 최종 브리핑인 '테크니컬 브리핑'을 승부의 분수령으로 보고 대세몰이에 나설 각오다. IOC 위원별 맞춤형 홍보 계획을 세우고 투표에 참여하는 1백3명의 IOC 위원들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그에 따른 득표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실사라는 첫 단추를 잘 꿴 만큼 이제부터 남은 1백여 일 동안의 노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었을 때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평창의 건승을 기원한다. G

글·김보경 (강원일보 체육부 기자)

일본 기마부대와 맞서 충북과 전북에서 활동한 이규홍 의병장과 산포수들(1907년).

6·25전쟁 당시 연합군 공군기 B29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낙하산 특공대원들.

"이 정도는 알아야 순국선열에 덜 죄송"

6·25전쟁이 남침임을 모르는 국민이 10명에 한 명이란 사실은 순국선열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철저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근현대사 100제(題) 선정과 보급에 나선다.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는 누구인가?" 정답·안중근 의사

정답해설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주인 된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 또 만주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식과 동양평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6·25전쟁 최후의 보루로 여기가 무너지면 부산까지 함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수한 이 전선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낙동강 전선

정답해설 6·25전쟁의 최후 보루는 낙동강 전선이었다. 여기가 무너지면 대구는 물론 부산까지 위험해 6·25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다부동·왜관·영산·박진 등 낙동강 전선의 주요 거점을 둘러싼 아군과 적군의 공방전이 50여 일 동안이나 치열하게 계속됐다. 그야말로 7백리 강물을 피로 물들인 혈전이 벌어졌고, 결국 아군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냄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4·19혁명 당시 시위는 서울에서만 일어났다." 정답·X

정답해설 4·19혁명은 경남 마산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시위가 확산됐다. 서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기습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전국 일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친근하게 근현대사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일문일답, 오엑스(OX) 문제 등으로 구성된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근현대사 100제(題)'를 선정·보급한다.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근현대사 100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까지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선정된다.

국가보훈처는 일차적으로 독립기념관에 근현대사 100제 선정을 의뢰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에 반영하며 최종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월 22일 독립기념관으로부터 근현대사 100제 기본안을 받은 데 이어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 '꾸러기 보훈광장'에서 '나라사랑 문제 출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1960년 경남 마산에서 시작돼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근현대사 100제를 추천할 수 있다. 우수 추천자에게는 전자사전과 영화예매권 등 경품이 주어진다.

근현대사 100제의 시대별 비중은 ▲1895년~6·25전쟁 발발 이전이 50퍼센트 ▲6·25전쟁이 30퍼센트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이 20퍼센트로 구성된다.

선열들이 나라 지키기에 고군분투한 기록인 근현대사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상당수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 바로 알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문제 출제… 댓글로 100제 추천 받아"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25전쟁 발발 시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30퍼센트가 모른다고 응답했고(2009년), 6·25전쟁이 남침임을 모르는 국민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2009년 15퍼센트→2010년 8퍼센트) 아직 10명 중 한 명 정도여서 역사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함양하고 나라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근현대사 100제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현대사 100제를 게재하고 4·19혁명 등 주요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퀴즈대회 형식으로 근현대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바른 역사교육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 위원회는 독도 문제와 주변국의 역사 왜곡 등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 정체성 및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조직됐다.

이 위원회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 교육학 전문가 및 현장 교원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돈, 시간, 열정을 이웃과 나누어요"

정상적인 기업은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과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는 이윤을 내기는커녕 생존을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하는 문화도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나눔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펼치는 다양한 '나눔과 상생경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소개한 사례는 수많은 기업이 펼치는 나눔과 상생경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DB

기업의 나눔과 상생경영은 중소·중견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업체 네오위즈 직원들.

삼성전자 | 중국서 100번째 희망학교 기공

삼성전자는 작년 7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난충시(南充市)에서 1백번째 희망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중국 내 낙후된 소학교를 새로 지어 주는 '애니콜 희망소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근희 중국삼성 사장은 "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희망소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국삼성은 교육지원과 공익사업, 사회복지, 농촌지원, 환경보호 등 중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중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1백번째 소학교 건립은 우리 기업의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이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단순히 전시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STX그룹 | 장학·복지재단 2백명 이상 지원

STX그룹은 그룹의 4대 미션인 '사회통합, 균형발전, 환경보전,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7년부터 협력사 대표의 부인들로 구성된 'STX 멤버스 가족봉사단'을 설립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협력, 교육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5백여 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지고 협력사들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도입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생경영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STX는 'STX 장학재단'과 'STX 복지재단'을 통해 우수 학생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STX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국내장학생과 해외유학생 등 2백명 이상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강덕수 STX 회장이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총 91억원에 이른다.

GS건설 | 협력협체 도울 4백억 상생펀드 조성

GS건설은 2007년 12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지원 ▲기타경영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GS건설은 다양한 맞춤형 상생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상생펀드'다. GS건설의 협력사들은 4백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GS건설이 2010년 6월 2백억원을 출연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2백억원을 출연해 만든 자금이다.

신한은행은 GS건설의 자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출을 해 주며, 1퍼센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GS건설의 협력업체는 공사와 관련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만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KT | '3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2010년 7월 이석채 KT 회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생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3불(不) 정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의 자원이 KT로 인해 낭비되지 않게 하고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경쟁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가는

것은 결국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터를 닦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오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IT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열어 가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현대건설 | 우수 협력업체에 무이자 자금대여

현대건설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해 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본사 내에 'CSR팀'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

현대건설그룹사 전 임직원과 가족 등 10만명이 참여하는 '현대건설가족 사회봉사단'을 발족시켜 사회공헌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 협력사 자금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조성한 6백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통해 6백8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 기일을 매월 20일에서 13일로 7일 단축하고,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연 2회 1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대여해 주고 있다.

하나투어 | 한국소비자포럼 사회공헌대상 수상

하나투어는 2010년 한국소비자포럼의 'THE COMPANY of Korea 2010' 사회공헌 대상에 선정됐다. 'THE COMPANY of Korea'는 경영혁신, 신뢰기업, 사회공헌의 각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하나투어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장학지원, 청소년복지, 환경보전보호 부문 등 총 5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회공헌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하나투어는 '2010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이 상은 포브스 코리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는 사회의식 속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대우증권 | 사회공헌 예산 1년 새 1백50퍼센트 늘려

대우증권의 사회공헌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대우증권은 2009년 7월,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하는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증권에 사회공헌은 기업경영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의 한 축으로서 차별화된 사회공헌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그리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규모도 점차 늘려 가고 있다. 2010년 말 대우증권의 사회공헌 예산은 2009년 6월 현 임기영 사장 취임 이후 1백50퍼센트나 증가했다.

부산은행 | 매주 토요일 릴레이 지역봉사 활동

부산은행은 2003년 4월 사회공헌 전담부서인 '지역사회공헌반'을 신설한 후 2009년 1월 이를 '지역문화 홍보부'로 확대시키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행의 지역봉사단은 전(全)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총 18개 지구봉사대에서 31개 봉사팀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을 '지역봉사의 날'로 정해 부산뿐 아니라 울산, 양산, 김해 지역에 걸쳐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해 2008년 12월에는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9년 9월에는 '제1회 부산시 사회공헌장 으뜸장'을 수상했다.

대한항공 | 물질보다 시간과 재능 나누는 봉사

대한항공은 프랑스 루브르, 영국 대영,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등 세계 3대 박물관에 한국어 작품안내 서비스를 후원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몽골·LA 등 외국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를 펼치며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재해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응급 구호품을 수송하는 활동, 스포츠 발전을 위한 후원 등 대한항공이 펼쳐 가는 사회공헌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사람의 시간과 재능을 요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기업이다.

신도리코 | 상영재단 설립해 소외된 이웃 돕기

신도리코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다. 1994년에는 상영재단을 설립하여 아동·무의탁노인·장애인 수용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1999년부터는 최순영 육영재단을 설립, 여성인재 육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05년 최순영 육영재단은 상영재단으로 통합되어 신도리코의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더 튼튼하고 건실한 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상영재단은 그간의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9월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고, 2008년 6월에는 최순영 이사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 G

글·이상흔 기자

신시컴퍼니

누비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라다메스 장군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아이다'.

'아이다' '지킬 앤 하이드' '빌리 엘리어트'

작품성 높은 뮤지컬 '빅3' 흥행도 대박

국내 뮤지컬 시장이 점차 커짐에 따라 1백회 이상 장기공연을 하는 작품들이 늘고 있다. '아이다'는 오는 3월 12일 1백회 공연을 맞는다. 2005년 한국 초연 이후 두번째 공연 중인 뮤지컬 '아이다'는 세련된 무대와 조명,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누비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라다메스 장군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아이다'는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대표적인 작사가 팀 라이스가 콤비를 이룬 대작이다. 2000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1천5백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갔고 토니상 여우주연상, 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조명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그래미 베스트 뮤지컬 앨범상을 받았다.

'아이다' 1백20회 공연을 '원 캐스트'로 진행

국내 초연 때 음악감독이었던 박칼린은 이번에는 국내 협력연출을 맡았다. 아이다 역은 옥주현, 암네리스 역은 정선아, 라다메스 역은 김우형이 담당한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한 명이 하나의 배역을 담당하는 '원 캐스트(one cast)'이다. 총 1백20회 공연 동안 한 배역을 한 명의 배우가 책임지는 것이다.

옥주현은 "2005년 초연 때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고, 다시 한번 하고 싶어 5년간 칼을 갈았다"며 "5년이 지나 배우로서 좀 더 성숙한 시기에 다시 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옥주현은 지난 1월23일 저녁 공연을 앞두고 목소리 이상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기도 했다.

옥주현은 당시 낮 공연을 끝낸 뒤 목에 이상을 호소했고 병원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성대에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공연장인 성남아트센터로 돌아왔지만 계속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고 옥주현의 커버 배우 연습량도 충분하지 못해 결국 저녁 공연이 취소된 것이다.

'아이다' 제작사인 신시컴퍼니는 "지난 1월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23일 저녁 공연을 못 본 관객들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보상을 했다"면서 "공연이 막을 내릴 때까지 배우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아이다'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3월 27일까지 공연된다.

오디뮤지컬컴퍼니

인간 내면에 자리잡은 선악의 대립과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룬 '지킬 앤 하이드'.

매지스텔라

광부의 아들 빌리가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은 '빌리 엘리어트'.

또 조승우는 지난해 12월 10일 '지킬 앤 하이드' 1백회째 공연을 했다. '지킬 앤 하이드'는 뮤지컬계 최고의 흥행스타로 손꼽히는 조승우의 군 제대 후 복귀작이자 4년 만의 출연작으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불러모았다. 조승우는 2004년 국내 초연 때부터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감성적인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조승우 신드롬'을 일으켰다.

'지킬 앤 하이드'는 선과 악의 이야기다. 한 인간 안에 내재된 선과 악의 싸움을 2시간40분 동안 펼쳐낸다. 선과 악이라는 양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과 내면의 싸움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이 작품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물의 괴로움에 온 몸을 뒤틀며 지킬이 하이드로 변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여 초.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바꾼 것뿐인데 느낌은 전혀 달라진다. 두 명의 배우가 따로 지킬과 하이드를 따로 연기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조승우는 두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조승우 티켓파워 '지킬 앤 하이드'로 절정

관객의 반응이 절정일 때는 조승우(지킬)가 1막에서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과 2막에서 '대결(Confrontation)'을 부를 때이다. 또 김선영(루시)의 '나는 누구일까(No one knows who I am)'와 '남자를 유혹해(Bring on the men)'에서도 힘찬 박수가 터져 나온다.

지킬 역은 조승우를 비롯해 류정한, 홍광호, 김준현 등 4명이 번갈아 맡는다. 엠마 역은 김소현·조정은, 루시 역은 김선영·소냐·선민이 담당한다.

인간 내면에 자리잡은 선악의 대립과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룬 로버트 스티븐슨의 원작과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을 잘 버무려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지킬 앤 하이드'는 오는 5월 8일까지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지난 2월 27일 서울 공연을 마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지난해 11월 17일에 1백회 공연을 했다. 19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는 '빌리 엘리어트'는 광부의 아들 빌리가 우연히 접한 발레 수업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레리노의 꿈을 이뤄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아들이 권투 배우기를 바랐던 빌리의 아버지는 어느 날 빌리가 혼자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부인의 유품을 전당포에 맡기고 갱으로 다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강한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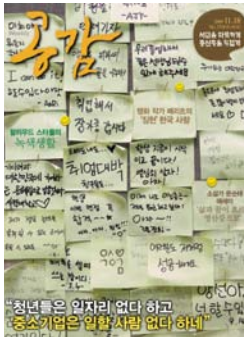
'빌리 엘리어트', 2대 빌리 찾기 진행 중

주인공 빌리 엘리어트는 발레, 탭댄스, 애크러배틱, 노래와 연기 실력을 갖춰야 했고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키 1백50센티미터 이하의 소년'이라는 조건에도 부합해야 했다.

대한민국의 '빌리 찾기'는 2009년 2월부터 시작돼 4차에 걸친 오디션이 1년 이상 진행됐고, 지난해 5명의 대한민국 '1대 빌리'가 탄생했다. 김세용, 박준형, 이지명, 정진호, 임선우가 빌리를 번갈아 연기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동명 영화의 감독 스티븐 달드리가 연출을 맡고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엘튼 존이 작곡가로 참여해 2005년 영국에서 초연됐다. 원작자인 작가 리 홀이 각본을 담당하고 피터 달링이 안무를 맡았다.

노래, 춤 등이 인상적인 '빌리 엘리어트'의 국내 성공은 역시 극중에 담긴 '부정(父情)' 때문이기도 하다. 매지스텔라 문미호 대표는 "우리 정서와 딱 맞습니다. 탄탄한 드라마가 심장을 파고들죠. 자극적인 것 대신 진정성으로 감동을 뿌려주는 작품이라고 할까요"라면서 '2대 빌리 찾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오는 8월 대구에서 다시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G

글·서일호 기자

정부와 국민의 100점짜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정부의
발행된 〈위클리 공감〉은 100호를 맞는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이렇게 자문했다. 그리고 그는 "사랑으로 산다"고 답했다.

아마도 톨스토이가 현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현대인들은 숫자로 산다고 답할는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숫자들이 관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침 기상시각에 맞춰 놓은 자명종이나 알람 소리에 잠을 깨면 사무실이나 학교로 향하는 번호가 적힌 버스를 골라 타거나 지하철 노선을 택해 몸을 싣는다. 버스나 전철을 타고 오가는 틈을 이용해 청소년이라면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손은 잠시 출근길의 긴장을 벗어나 스터디셀러인 〈백 년 동안의 고독〉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백번째 그리움〉 혹은 〈아흔 아홉번 너를 생각하고도 백번째 너를 그리워하는 나〉 같은 수필에 잠시 감성을 내맡긴 경험도 있지 않을까.

사회의 다양한 관심분야 조명하는 가교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숫자 가운데 '백(百)'이란 숫자는 참 특별나다. 세상에 태어나면 백일(百日)을 맞아 축복을 받고 백수(百壽)의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살다 보면 백배사죄(百拜謝罪)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백전백승(百戰百勝)에 신나기도 하며 때론 일당백(一當百)의 능력을 소망하기도 한다.

이렇듯 백은 그냥 백이 아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처럼 '그토록 오래', 때로는 많이, 온전하단 뜻을 지닌다.

〈위클리 공감〉도 드디어 '백'에 도달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정책정보지를 표방해 온 〈위클리 공감〉은 지난 2009년 3월 4일자로 1호를 펴낸 이후 '정부와 국민의 소통과 공감'이란 한 길을 걸어 이번 호로 100호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반갑게 악수하는 사진을 표지로 올린 1호 이후 〈위클리 공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조명하며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되어 왔다. '관보 아닌 관보'를 지향해 온 〈위클리 공감〉은 표지며 기사며 기존 관보와 달랐다.

3호(2009년 3월 18일자), 4호(2009년 3월 25일자)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에 출전해 낭보를 전하던 당시 한국선수단과 김인식 감독을 표지와 기사에 실어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했다. 7호(2009년 4월 15일자)는 가요계에 '빅뱅'을 일으키고 있던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5명을 커버스토리로 소개했다.

37호(2009년 11월 18일자)는 청년실업의 절박함을 전했다. "취업해서 장가 좀 갑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다"와 같은 글귀가 적힌 표지 사진 속 노란색 메모지들은 마치 취업을 고대하며 걸어놓은 노란리본들 같았다.

소통의 장으로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이 이번 3월 9일자로 100호를 발행한다. 지난 2009년 3월 1호가 분야를 조명하며 정부와 국민의 소통과 공감의 장(場)이 되어 왔다.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38호(2009년 11월 25일자) 표지에 동참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인의 몸매로 꼽힌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40호(2009년 12월 9일자)를 빛내 주었다.

위풍당당한 백호의 모습(43호·2009년 12월 30일, 2010년 1월 6일자 합본호)으로 2010년 새해를 맞은 〈위클리 공감〉은 50호(2010년 3월 3일자)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시상대에서 눈물짓는 모습을 실어 국민과 함께 금메달의 기쁨을 나눴다.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염원하던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천안함 피격사건은 이들을 구하러 찬 바다에 뛰어든 'UDT의 전설' 한주호 준위의 사진과 함께 55호(2010년 4월 7일자)에 기록되어 국민의 가슴에 깊이 각인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이룬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기쁨은 65호(2010년 6월 23일자), 66호(2010년 6월 30일자)에 서울 시청 앞 광장의 붉은 물결과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담겼다.

69호(2010년 7월 21일)에선 사회문제가 된 어린이 대상범죄를 기획특집 기사로 실었으며, 73호(2010년 8월 18일자)는 광복 65주년을 맞아 위용을 드러낸 광화문을 알렸다. 77호(2010년 9월 15일자)는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르포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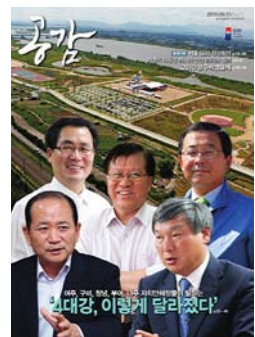
84호(2010년 11월 10일자), 85호(2010년 11월 17일자)에는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무대의 중심에 올린 서울 G20 정상회의가 상세히 보도됐다. 86호(2010년 11월 24일)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에 오른 박태환의 환호를 전한 뒤 다음 호인 87호(2010년 12월 1일)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불타는 연평도에 경악하며 다시금 젊은 용사들을 잃은 비통함에 잠겨야 했다.

상세한 정책정보로 국민들의 이해 도와

2011년 새해를 맞아 '공정사회의 아이콘'인 가수 허각의 열창 장면(92호·1월 5일자)으로 문을 연 〈위클리 공감〉은 거침없이 세계로 향하는 G20세대(94호·1월 19일자), 아덴만 여명작전에 성공한 청해부대(95호·1월 26일자), 2018년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우는 평창(98호·2월 22일자) 등 우리 사회의 이슈와 화제의 인물들을 놓치지 않았다.

〈백번째 원숭이를 움직인 생각〉이란 일본 작가의 책이 있다. 이 책에선 '백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란 걸 소개하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그 행동이 그 집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넘어 확산되는 현상이란다.

〈위클리 공감〉 100호를 계기로 다음 장에서부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100점'을 위한 노력들을 둘러보려 한다. 〈위클리 공감〉 100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누구든 '백번째 원숭이'가 되어 결국 모두 온전한 세상, 100점짜리 소통과 공감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G

글·박경아 기자

국민과 공감하며 1000호 때도 함께해요~

〈위클리공감〉 100호를 맞아 애독자 여러분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공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자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위클리공감〉이 되겠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 주세요"

강재옥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①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접해 보고 싶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② 가장 좋은 점은 어렵게만 보이는 정책현황을 다양한 현장 사진과 각계 전문가들의 글을 더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퇴근하면서 부담 없이 시사정보를 쌓는 데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③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의 인터뷰 기사와 나를 찾아 떠나는 녹색 여행 기사 등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④ 아름다운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향기가 느껴지듯, 〈위클리공감〉에서도 '공감'다운 향기가 남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소개와 함께 사람 냄새 가득한 기사를 꾸준히 게재해 주세요.

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위클리공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미용, 정신건강, 가요 분야 기사도 다뤄 주세요"

최태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① 경북 구미세관에서 잡지를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공감〉이란 제목이 포용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쉽게 와 닿았습니다.

② 〈위클리공감〉은 우리 사회의 실정을 그때그때 바로 다루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③ 특히 김연아와 박칼린과 같이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대로 잘 반영된 기사가 기억에서 잊어지지 않는군요.

④ 욕심을 낸다면 〈공감〉에서 미용, 정신건강, 가요, 클래식 등을 다루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⑤ 100호가 나오기까지 〈위클리공감〉 모든 제작진께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독자들이 그 노고를 생각하며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공감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성원전 견학중 첫 인연… 그 후 틈틈이 챙겨 봐"

고찬호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① 작년 9월 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벤트를 통한 원전견학 중 월성원자력발전소 홍보관에 비치된 〈공감〉 46호를 처음 봤습니다. 제주시청 문화체육과 행정인턴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구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②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 강원도 평창이나 구제역 가축 매몰지 2차 오염 등과 같이 매호에서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알기 쉽고 재밌게 다루고 있어서 틈날 때마다 챙겨 보기 좋습니다.

③ 〈공감〉 46호의 기획특집인 '2010 한국 원자력산업 세계 도약 원년'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UAE 원전 수주전 기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 원자력과 원자폭탄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원자력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원전에 관하여 다방면으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④ 외삼촌이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모두 '다 문화'입니다" 기사를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수의 대변인이자 희망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⑤ 〈공감〉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호에 이어 승승장구해서 200호, 300호, 1000호까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잡지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기사내용이 매력"

조준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① 한창 시사에 관심을 갖고 〈위클리공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공감〉을 처음 만난 건 동네 공공도서관으로 기억합니다.

② 시사성 있는 각종 이슈는 물론이고 깊이 있는 문화 관련 기사들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시사잡지이면서도 딱딱하지 않다고 할까? 그런 점들이 〈위클리공감〉의 매력인 듯합니다.

③ 외교관들의 관점에서 본 중남미의 한류라는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

다. 한국을 알리기 위한 많은 사람의 노력과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흥미진진했던 기사로 기억에 남네요.
④ 일반 서민들이 시사와 국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친근한 내용으로 가득 찬 기사 부탁드릴게요.
⑤ 100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제도 소개 등 따뜻한 정보 좋아"

최소연 전북 군산시 신영동

① 함께 근무하는 직원분 덕분에 〈공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매주 신선하고 따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공감〉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 제도뿐만 아니라, 핫이슈, 경제분야, 문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요.
③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 '서민 복지로 꿈과 희망 품다'를 가장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단지 말뿐인 서민 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친서민 복지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④ 언제나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위클리공감〉을 기다리는 설렘, 읽으면서 느끼는 자양강장제를 마신 듯한 상쾌함. 〈공감〉 덕분에 한주 한주가 기다려집니다.
⑤ 〈위클리공감〉의 100호 맞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발 빠르고 알찬 정보 기대할게요!

"전문가의 정확한 정책의견 게재로 신뢰성 가져"

이상협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① 2009년에 부산시청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시청 자료실에서 〈위클리공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충실해 근무하던 동료 모두 각자 한 부씩 신청했습니다.
② 정부정책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점이 좋았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정확한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더욱더 기사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③ 2009년 3월 25일자 4호에 실린 행정인턴에 관한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 인터뷰도 조금 실렸는데 무엇보다 행정인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맡은 바 직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뿌듯했습니다.
④ 언젠가 특집으로 〈위클리공감〉의 기자분들에 대한 기사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자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⑤ 〈위클리공감〉 100호를 축하합니다. 더욱더 발전해서 다음에는 1000호 축하 메시지를 적고 싶습니다.

"기사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져 쉽게 공감"

황순옥 대전시 서구 둔산동

① 민원을 신청하러 구청에 갔다가 보게 되었어요. 〈공감〉을 읽다 보니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서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② 〈공감〉에 실린 기사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아! 그렇지" "아! 그랬었구나"라고 금방 공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③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담은 기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④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시행에 앞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사전에 홍보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⑤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감〉과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를 '공감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주인공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더욱 알찬 기사 기대해요"

양옥자 대구시 수성구 지산2동

①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갔다가 차례를 기다리는 중에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② 4대강에 대한 기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양한 기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③ 천안함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④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들을 알기 쉽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⑤ 〈공감〉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공감〉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자에게 드린 5가지 공통 질문

1. 어떤 계기로 〈공감〉을 알게 됐나요?
2. 그동안 〈공감〉을 지켜보면서 좋았던 점은?
3. 특별히 인상 깊었던 기사가 있다면?
4. 앞으로 더 바라는 점은?
5. 마지막으로 축하 메시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날쌘돌이' 서정원 코치 축구교실

미래의 박지성·구자철을 키운다

지난해 말 대청도에서 줄곧 학교를 다녔던 백모 군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교육 한 번 받지 않았던 백군의 뒤에는 해병대 장병들이 꾸린 '주말학교'라는 든든한 '빽'이 있었다. 최근 나눔의 의미가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2011년 신년기획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 재능 나눔과 봉사 현장을 소개한다.

서정원 코치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달리며, 협동심과 기초체력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즐거워지는데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잔디운동장. 초등 4, 5학년 학생 30여 명이 운동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술래잡기를 한다.

마음 한구석 응어리를 다 털어내겠다는 듯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친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혜지 선생님(사회복지사)도 즐거운 표정이다. 이날은 '서정원 선수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생활체육 축구교실' 첫날이다.

"서정원 선수가 누구예요?" 열성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날쌘돌이' 서정원 선수를 모르다니. 하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박지성, 구자철, 손흥민 선수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해 보였다.

보통 생각하는 술래잡기와는 좀 달랐다. 술래가 된 아이와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함께 있다. 술래는 아이들을 잡거나 운동장 밖으로 몰아내면 성공이다. 이렇게 잡힌 아이들은 술래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길게 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잡아낸다.

"부상당하지 않도록 게임을 통해 몸을 푸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무엇보다 술래가 손을 붙잡고 길게 늘어서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서정원 코치가 순발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축구공을 이용해 핸드볼처럼 공을 뺏기지 않으며 패스하는 게임.

가기 위해서라도 서로 집중을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죠. 재미가 있으니 훈련하는데 싫증도 나지 않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서정원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서정원 코치가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훈련이란 게 없었다고 한다. 운동장을 뛰며 땀 흘리고 공을 차고 골을 넣는 것이 훈련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부상도 잦았다. 또 다른 게임이 이어졌다. 이번엔 축구공을 이용해 핸드볼처럼 공을 뺏기지 않으며 같은 편끼리 패스를 하는 게임이다.

놀이훈련으로 즐기면서 집중력과 협동심 키워

공을 빼앗기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상대편에게 넘어가고 패스를 10번 하면 성공이다. 모든 게임이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아이들끼리는 물론 코치 선생님들과도 이제는 허물없는 친구가 됐다.

"서정원 선수가 누구예요?" 하고 묻던 아이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본격적으로 축구게임이 시작됐다. 4팀으로 나뉘어 10분씩 번갈아 가며 대결을 했다.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게임을 한 효과일까, 패스가 곧잘 이뤄졌다.

슛을 할 때마다 쉬고 있는 아이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렸다. 개중에는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붙여 가며 중계놀이도 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아이들이 박지성이고 구자철이고 웨인 루니였다.

"메시 선수가 제일 좋아요. 서정원 선수는 잘 모르지만, 오늘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축구도 가르쳐 주시니 좋은 사람 같아요. 기회가 되면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박모 군·5학년)

서정원 코치는 이렇게 축구교실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후배의 권유로 시작한 축구교실을 3년째 이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역시절에 국가대표도 했고 유럽에서 뛰기도 했죠. 지금은 국가대표 코치를 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동안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보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3년째 축구교실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매년 초반기에 10회 한정으로 축구교실을 하다 보니 연속성이 없고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연중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축구에 소질 있는 아이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아는 선수들 중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한테도 봉사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고."

서정원 코치는 이런 방식의 축구교실을 연중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리그(대회)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질 있는 아이들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가난해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서정원 코치는 이번 축구교실은 물론, 체력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어디든지 달려가 재능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가난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지난 1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에는 서정원 코치를 비롯해 이규혁(스케이팅), 유승민(탁구), 홍인기(스키) 등 전·현직 스포츠 스타들뿐 아니라, 연예인야구팀(조마조마, 알바트로스, 한)과 프로농구 선수단(서울 삼성 썬더스, 울산 모비스 피버스,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도 동참하고 있다. G

글과 사진·공감코리아 (www.korea.kr)

무보증·무담보 서민대출로 창업한 이준용·이연형 부부

‘대박’ 과일가게 소문… 매일 나눔 실천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은 서민에게 금융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한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이준용씨는 한때 막노동을 전전했지만 서민대출을 지원받아 지금은 어엿한 과일가게 ‘사장님’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준호 기자

서민금융 대출받아 창업한 지 햇수로 3년째 접어드는 이준용, 이연형씨 부부. 나눔을 실천한 지도 1년이 됐다.

“요즘 택배 주문이 많아요. 오늘도 신선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세번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영희초등학교 앞에서 ‘행복을 파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용씨는 한창 상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준용(49)·이연형(46)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여덟 평 남짓 아담한 과일가게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이씨 부부가 운영하는 과일가게는 그 일대에서 ‘대박 과일가게’로 통한다. ‘장부’에 등록돼 있는 단골손님만 4백명이 넘는다. 개업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재 월 매출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7년 전 실직과 동시에 모시고 있던 장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게다가 다섯 살, 여덟 살, 열한 살 어린 자식들까지…,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한동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막노동을 전전했고 아내는 식당 등에서 궂은일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은 고사하고 한 달에 1백70만원 되는 장모님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씨는 “장모님의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해 낼 길이 없어 춘천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오던 날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편찮으신 장모님을 먼 곳에 두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서울 병원으로 다시 모셔오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악순환되는 빈곤의 고리는 끊을

수 없었다. 하루하루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2008년 판교가압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아파트 앞에 붙어 있던 공고문을 보고 술이 확 깼죠. 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대 1 경쟁 뚫고 5천만원 대출받아 창업

서민대상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은 담보도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어 '빚질 형편조차 안 됐던' 이씨에겐 마지막 희망이었다.

"누가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5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겠어요. 당시엔 어떻게든 가족 먹여 살려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씨는 처지와 자활의지, 20년 동안 과일 업계에서 쌓은 경력 등을 인정받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강남구청에서 위탁한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창업지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3개월간 창업 준비를 거친 후 '행복을 파는 과일 가게'를 열었다.

'행복을 파는 과일 가게'가 대박 가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강남구청 마이크로크레딧 1호점'이라는 수식어 때문만이 아니다.

대박 가게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씨가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첫열매나눔운동'이 한몫하고 있다. 첫열매나눔운동이란 첫 개시 판매액은 모두 기부하는, 이씨 부부만의 나눔 운동이다. 개시 매출이 3천원이든, 5만원이든 액수에 관계없이 매일 첫 판매액은 1년째 사회연대은행에 기부해 오고 있다.

"저희 부부가 가게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첫마디가 '오늘 첫 열매 얼마야?'예요. 비록 아직 17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빚도 많이 남아 있지만 사회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다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뜻 모아 첫열매나눔운동 펼쳐

현재까지 기부액은 약 4백만원 정도다.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씨 부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손님도 늘었다. 이씨는 "서로 '첫 손님이 되겠다'며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무조건 깎으려고만 했던 손님이나 '덤을 달라'고 했던 손님도 첫열매나눔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정찰제 가격으로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잔돈은 아예 안 받아가는 단골 과일 한 상자 사러 압구정동에서

조선DB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서민들에겐 서민금융이 있다. 대부분 낮은 이자로 소액 창업 대출이나 생계 지원 대출을 한다.

일원동까지 일부러 오는 단골 모두가 그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처음 창업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는 '불우한 이웃처럼 지원금 받는 것이냐'며 아이들이 창피해했어요. 실제로 아이가 비슷한 내용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엄마, 아빠는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기부도 한다'며 자랑스러워해요. 물론 춘천 요양원에 계셨던 장모님도 서울 병원으로 모셔왔고요."

2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해오고, 단 하루도 가족 회식을 하거나 쉰 날이 없었다.

지원받았던 대출금은 이제 5분의 2정도 갚았다는 그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진 않지만 내 가게에서 내 일을 한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망하기 전에, 자활 의지를 갖고 살길을 모색하면 자신과 같은 서민을 위한 유용한 정책이나 제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G

글·박근희 기자

요즘 서민금융 어떤게 있나?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대출목적	저신용자 창업지원	서민 고금리 부담완화	서민생계지원
대출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창업희망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저신용자	2백84조5천억원
대출금리	연 4.5퍼센트	연 10~13퍼센트	연 7~13퍼센트
대출기관	미소금융재단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 해드림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문의	www.smilemicrobank.co.kr	www.sunshineloan.or.kr	www.kfb.or.kr

미소국가대표 1기 단원들이 새해맞이행사로 보신각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다.

웃음 가득한 한국인의 얼굴을 꿈꾼다

'미소국가대표' 한국방문의 해 대학생 홍보단 국내외서 1백여 명 참여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미소로 한국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선정한 환대실천 캠페인 대학생 홍보단 '미소국가대표'다. 이들은 2009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미소를 전달하는 범국민 환대서비스 개선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미소천사'들이 떴다. 친절과 미소로써 한국을 알리는 대학생 홍보단이 그 주인공이다.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2학년 이와정, 탁보배, 김민선, 김수은, 고혜림 등 5명의 미소천사들은 스튜어디스학과생으로 평소 서비스 부문과 미소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미소국가대표' 3기에 지원했다.

팀명은 'SOS'. SOS는 웃음이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을 언제든지 웃음으로 구조해 주며 미소를 알리자는 의미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본 한국인의 인상은 무표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미소국가대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소 캠페인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 것이 미소국가대표의 목표입니다."

SOS팀을 이끈 이와정씨의 말이다. SOS팀은 미소국가대표 광주/전남팀으로 선발되어 호남권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해 F1 참석을 위해 입국한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 선수의 입국환영식에서 미소국가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전남 영암군에서 개최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F1은 세계 3대 스포츠대회 중 하나다.

이와정씨는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해 한복을 입고 외국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환영해 준다는 것이 소중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마허 선수와 포옹하는 영광까지 얻었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한국의 미소 대표로 뽑힌 이들은 환한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한국을 알리고 있다.

팀 이뤄 환대서비스 개선 서포터즈로

미소국가대표로는 기수마다 국내외 대학생 1백여 명이 활동한다. 5인 이내로 팀을 이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는 것이 주된 일이다.

'한국방문의 해'는 현재 7백80만명인 외래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한국방문의 해 행사는 '한국관광 고품격 선진화 및 관광브랜드 인지도 강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외래 관

광객 1천만명, 관광수입 1백30억 달러,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도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기타 12개 기업들이 후원한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는 배용준, 김연아, 뽀로로 등이 활동 중이며 김윤옥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옥 명예위원장은 '한국방문의 해' 선포문에서 "한국방문의 해 선포의 의미는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인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외국관광객들을 기쁘게 맞이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첫 단계로 '환대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환대란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이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정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환대의 3대 기본 원칙은 미소, 용기, 배려로 정했다. 밝은 '미소'는 전 세계 공통의 환영한다는 의미로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본 요소다. 외국어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용기'를 갖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는 환대서비스의 출발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낯선 장소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애로사항을 '배려'하는 자세는 환대서비스의 발판이 된다.

환대실천 캠페인 홍보에는 미소국가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미소국가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블로그, 트위터, UCC 제작 등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활동 기간은 기수별로 6개월이다. 2009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3기가 활동했으며 3월 11일까지 4기를 새로 모집(www.visitkoreayear.com 참조)한다.

그동안 미소국가대표들의 활동은 많은 화제를 몰고 왔다. 미소국가대표 1기 한울팀은 2009년 12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환대캠페인을 벌였다. 택시기사들에게 음료와 함께 차량 스티커 배포를 통해 '한국방문의 해'를 적극 알렸다. 이 밖에 새해맞이 환영이벤트, 서울그랜드세일맞이 명동캠페인 등 미소국가대표들의 활동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3대 기본 원칙 '미소, 용기, 배려' 널리 알려

미소국가대표 1기는 2010년 새해를 맞아 보신각, 정동진, 해운대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서 환대 캠페인을 벌였다. 미소국가대표 2기는 2010년 8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거리 명동에서 거리행진과 음악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주 한국음식관광축제에서 미소국가대표 3기가 한국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인사동, 홍대 등 관광명소와 공항, 역사 등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벌였다.

미소국가대표로 참여했던 탁보배씨는 "미소국가대표의 활동은 우리나라를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나의 미소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김수은씨도 "미소는 마음을 여는 세계 공용어"라며 "밝고 친절한 미소국가대표로서 앞으로도 한국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G

글·이제남 기자

미소국가대표 3기 'SOS'팀의 미소천사들(왼쪽 사진·왼쪽부터 김수은, 김민선, 이와정, 고혜림). SOS팀이 지난해 10월 열린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에서 '뽑기 게임'을 진행하며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고 있다.

3·1절 전날 별세한 김영일 광복회장

한평생 조국을 사랑한 '광복의 별'

애국지사 효운(曉雲) 김영일 광복회장이 영면했다. 고인은 2월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제생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3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김영일 애국지사의 세대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 세대"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면서 "고대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세대의 근대사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도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는 등 각계 각층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금화 여사와 아들 훈, 딸 모란, 수선, 수련이 있다.

평북 정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1943년 12월 중국으로 망명해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일제강점기 광복군 제3지대원이자 기관지 〈빛〉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미국 전략정보국(OSS) 특수훈련을 받던 중 조국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고인은 1949년 육군사관학교, 1966년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주월 십자성부대 사령관, 1970년 육군 보병 사단장, 1976년 육군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1979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광복군동지회 회장, 광복회 부회장을 거쳐 2008년 6월 제18대 광복회장에 당선돼 지금까지 광복회를 이끌어 왔다.

5일간 사회장…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생전에 고인은 독립운동 선열 위패 봉안전 건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역사교육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근대사 교육에 힘쓰는 등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역사교육 필수과목 채택 안을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세를 떨치던 지난 2009년 제90주년 3·1절을 기해 경제위기에서 더욱 고통받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10퍼센트 나눔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광복회의 대(對)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큰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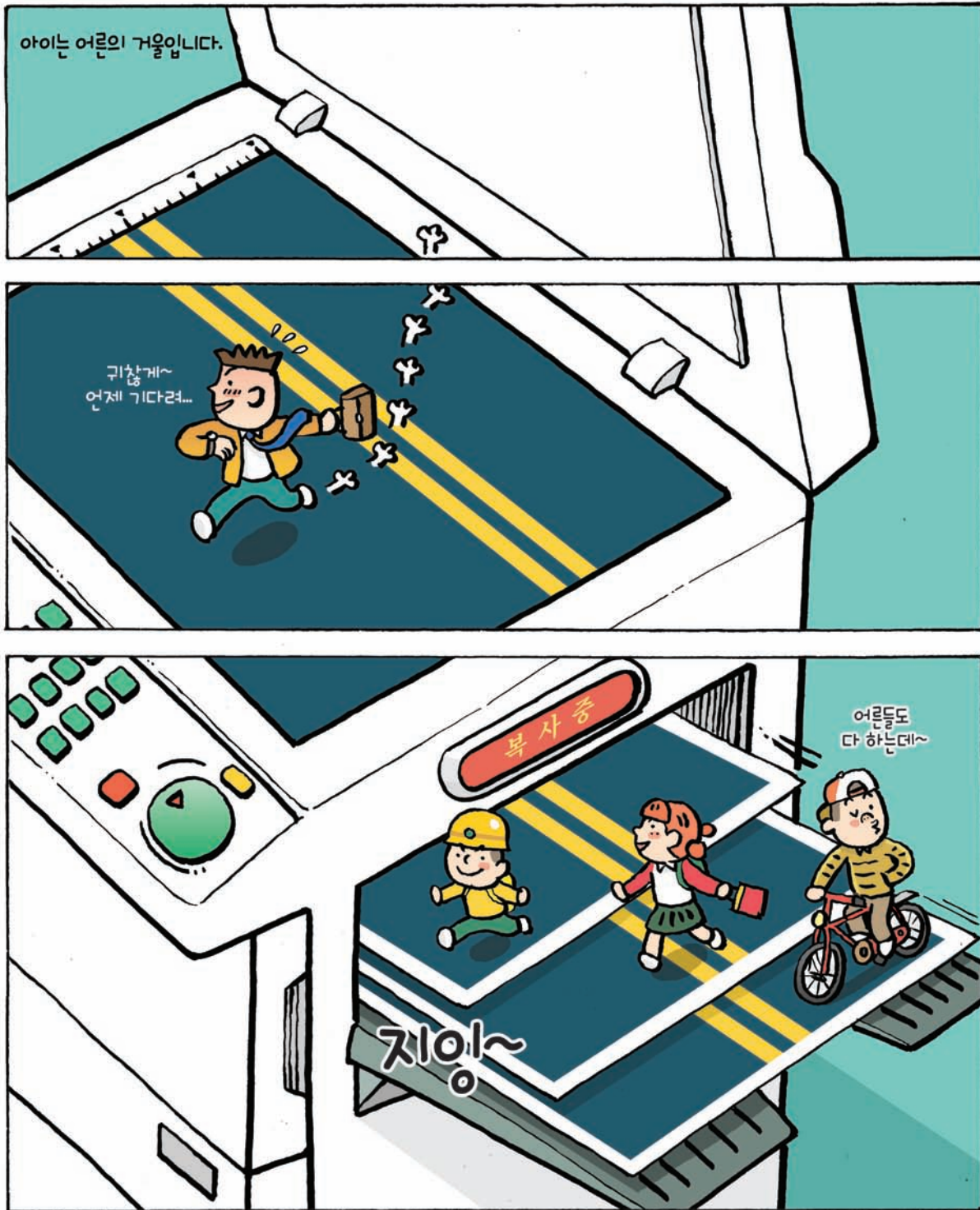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이 3월 3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애국지사 김영일 광복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친일재산 환수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3월 11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 친일세력 규탄대회 참석을 앞두고 있었다.

고인은 1951년 은성화랑훈장, 1953년 미 동성훈장, 1969년 충무무공훈장, 1970년 을지무공훈장, 1971년 미 육군공로훈장을 받았으며,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수훈했다.

글·박경아 기자

무단복사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사진·서울대치과병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치과병원의 의사들이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

찾아가는 '치과진료소' 전국 순회

'이 아픈 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이가 아파도 한국어가 서툴러 치료를 미뤄왔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이나생명보험㈜과 함께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협력을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 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진료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15세 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새터민가족의 만 15세 미만 자녀와 보호자 등이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진료대상

작년 6월에 처음 개설된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에서는 지난해 6회에 걸쳐 총 7백9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대상자에게는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교육, 무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무료 치과진료, 다국어 구강건강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처럼 단순히 검진만이 아닌 치료까지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진료소 개설 지역은 작년 말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도 미선정 지역, 지역안배, 다문화가족 분포도, 이동진료센터의 개설희망 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강당 등에서 실시하며 수도권은 1일, 지방은 2박3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월 경기도 오산시를 시작으로 4월 전북 장수, 5월 인천 남구, 6월 제주 등 연말까지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안상현 팀장은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가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민간분야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본보기적 사업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G

정리·이제남 기자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운영 일정

일정	지역	일정	지역
3월 26일	경기 오산시	8월 25~27일	강원 강릉시
4월 21~23일	전북 장수군	9월 24일	인천 부평구
5월 28일	인천 남구	10월 20~22일	경북 상주시
6월 23~25일	제주 제주시	11월 24~26일	충북 충주시
7월 23일	서울 강서구	· 수도권 지역 4회 (1일), 지방 5회 (2박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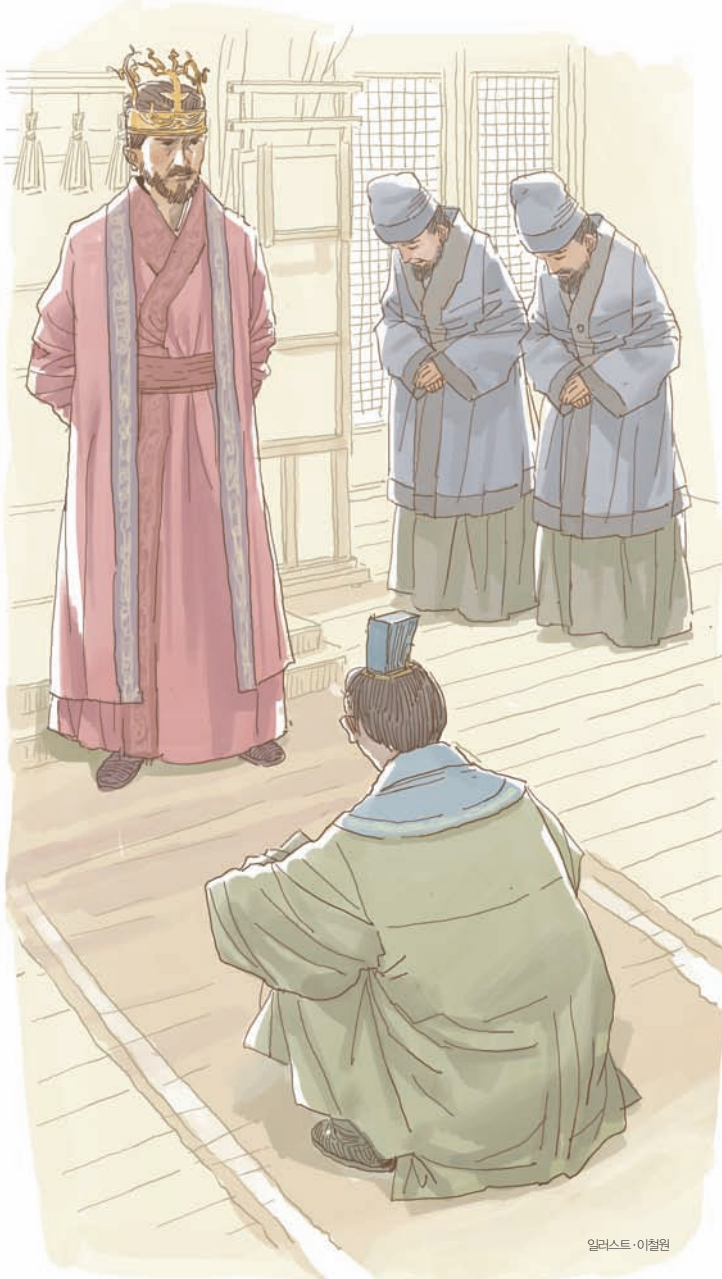
당신을 위한 마음

글과 그림 · 최영순

누군가에 의해 인생 곳곳에 숨어 있는 작고 따뜻한 친절과 배려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 윌리엄 하브리첼(미국 심장의학 권위자)

후연에 들어선 고구려 정권

왜 광개토대왕은 북연을 정복 안했을까?

후연의 장군 풍발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고구려인의 후손인 고운을 왕으로 추대했다. 후연에 친(親) 고구려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풍발은 곧 고운을 제거하고 북연을 세웠다. 북연은 이후에도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북쪽이 안정되자 광개토대왕은 남쪽의 백제를 공략,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혔다.

후연에 고구려계 정권이 들어서자 광개토대왕은 축하 사절을 파견했다. 삼국사기는 '사신을 북연(후연)에 보내 종족의 정을 베풀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고운도 곧바로 답방 사신을 보내는 등 양국은 이후 줄곧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407년 지방정권으로 쇠락한 후연(後燕) 조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주 모용희(慕容熙)가 수도를 비운 사이였다. 정신없는 군주 때문에 나라가 당장 망하겠다는 우려가 후연에 팽배해 있었다. 정쟁(政爭)에 연루돼 도망갔던 후연 장군 풍발(馮拔)은 그의 종형 만니(萬泥) 등 22인과 거사를 공모했다.

풍발은 고구려인 모용운을 왕으로 추대하고 병력 5천명을 동원해 성문을 걸고 지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용희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 용성의 북문을 공격했지만 패했다. 왕좌에서 밀려난 모용희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숲 속으로 도망가 숨었지만 곧 체포됐다. 당시 후연은 쪼그라들 대로 든 상태였다. 중원의 수복을 꿈꾸던 후연이었다. 그러나 중원을 장악하고 있던 북위는 강대했고 동쪽의 고구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삼국사기 "후연의 왕 고운에게 종족의 정을 베풀었다"

6년 전인 401년 북위가 후연의 영지를 함락시키자 북상한 광개토왕이 후연의 숙군성을 차지했다. 많은 사람과 재물이 고구려의 손으로 들어왔다. 숙군성은 후연의 수도와 가까운 곳이었다.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숙군성은 35년 후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403년 11월 광개토왕이 또다시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확보했다. 이듬해 정월 후연의 모용희가 반격을 해왔다. 모용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고사(枯死)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 똑똑하지 못한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일까? 후연의 군주 모용희는 즉위하자 자제심을 잃었다. 그는 이기적이며 허황된 성격의 소유자였다.

고구려 요동성 공격을 지휘하면서 후연 군주 모용희의 무능한 본모습이 드러났다. 후연군의 공격으로 성이 함락되려 할 때 모용희는 군대가 성 위로 오르는 것을 막았다. 그는 말했다. "먼저 성에 오르지 마라. 성을 깎아 평지가 될 때를 기다려 내가 황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전쟁에서는 적에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 모용희의 허황된 명령이 요동성을 살린 셈이다. 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 방비를 강화할 수 있었다.

모용희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군대를 돌려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자란 사람이요, 전쟁에 여자와 시종들을 잔뜩 데려오는 20세의 방만한 군주였다. 그는 부소의(苻昭儀)를 지극히 총애했다고 한다(진서).

407년 7월경 망국(亡國) 왕실의 종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정변이 일어나 모용희는 끌려가 처형되었고, 그가 뿌린 씨앗으로 세상에 나온 많은 남자 아이도 화룡성의 북쪽에 매장됐다. 아마도 여자 아이들은 노비로 팔렸을 것이다.

모용희는 그토록 사랑했던 부소의의 무덤에 함께 매장됐다. 쿠데타의 주동자 풍발이 모용희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준 셈이다. 모용수가 후연을 일으킨 지 24년 만의 일이었다.

풍발은 허수아비 왕을 세웠다. 모용운이라 불리는 고구려인이었다. 후연에는 332년 모용황의 침공 때 잡혀간 고구려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모용운은 그들의 후손으로 본명은 고운(高雲)이었다. 고운의 할아버지 고화(高和)는 자신이 고구려인이라 자처하고 살았다.

광개토왕은 왜 요서를 중원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당시 중원은 5개의 유목민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며 흥망 하는 곳이었다. 왕은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투기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낙동강에서 요하 사이를 오가며 안정적인 영토 확장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고운은 모용수의 넷째 아들인 모용보가 태자였을 때 궁에서 시위하는 시동이었다. 모용보의 눈에 들어 양자가 됐고 모용씨의 성(姓)을 하사받았다. 미래가 약속됐다. 하지만 398년 모용보가 사망하자 그의 운명은 아래로 굴러 바닥을 쳤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후 풍발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고운은 왕위에 옹립됐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한 자리였다.

요하에서 낙동강까지 오가며 사력 다해

407년 후연의 모용희가 실각하고 고구려계 고운의 정권이 들어서자 광개토왕은 곧바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삼국사기〉는 '사신을 북연(후연)에 보내 종족의 정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광개토왕은 그해 편안한 마음으로 군대를 남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대규모 병력인 5만명을 집중하여 마음 놓고 백제를 절단 내겠다는 생각이었다. 고구려는 백제에 승리한 결과 1만 벌의 갑옷과 막대한 군수물자를 노획했다. 백제군은 이 전투에서 다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

전선에서 돌아온 광개토왕은 408년 3월 북연의 왕 고운이 보낸 사절을 맞이하였다(자치통감). 그것은 전년도에 고구려의 축하사절단 파견에 대한 답방이었다. 하지만 고운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실권이 없는 왕이었다. 그것을 대왕은 잘 알고 있었다.

고작 1년 뒤인 409년 풍발은 정해진 각본대로 고운을 제거해 후연을 장악한 후 국호를 북연(北燕)으로 개칭했다. 고구려에 망명해 있던 풍발의 동생 풍비(馮丕)는 형이 정권을 잡자 귀국했다. 이후 북연이 존속한 기간에 고구려와의 우호 관계는 지속됐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인 고운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

광개토왕은 왜 고운의 암살을 명분 삼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북연을 정복하지 않았을까? 요서를 고구려의 손에 넣고 나아가 중원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다면 우리 역사의 범위는 넓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당시 중원이란 바늘 하나 꽂기도 힘든 곳이었다. 흉노, 선비, 갈, 강, 저 등 5개의 유목부족이 북중국에 들어와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흥망 하는 모습을 고구려는 생생히 목격했다.

북연은 그 16개 나라 가운데 마지막 국가였다. 그들은 대부분 단명했다. 모용선비처럼 망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였다. 북중국과 중원이 수족관이라면 다섯 종류의 유목민들은 그곳에 들어와 사는 물고기였다.

물론 다섯 종류라 해도 실제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가령 선비족의 경우 모용씨, 우문씨, 탁발씨, 단씨 등 각기 다른 단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문제는 수족관 내부에 소생의 순환 사이클인 먹이사슬이란 것이 없다는 데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육식성 물고기 상어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그들은 싸웠다.

광개토왕 당시 북중국이라는 수족관에 있던 상어들은 서로 잡아먹다 다 사라지고 한 마리의 거대하고 난폭한 상어와 상처를 입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작은 상어 한 마리가 남아 있었다. 전자가 북위이고 후자가 북연이었다. 고구려가 그 수족관에 들어간다면 북위라는 크고 시퍼런 상어와 경쟁을 해야 했다.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투기장에 뛰어들어야 위대한 왕일까? 광개토왕은 18세에 즉위해 39세에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다. 그는 한시도 쉴 새 없이 남쪽의 낙동강에서 북쪽의 요하 사이를 오가며 사력을 다했고, 젊은 나이에 과로로 죽었다. G

글 · 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박완서 소설문학의 고갱이 〈엄마의 말뚝〉

시대를 증언한 필적… 벌써 그립다

지난 1월22일 별세한 소설가 박완서씨는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巨木)이었다. 그는 여성의 몸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을 쉼 없이 되새김질하면서도 사랑·용서·화해의 세계를 노래하며 한국 문학의 찬란한 봉우리로 우뚝 섰다.

거인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리영희 선생이 돌아가시더니, 새해에는 박완서 선생이 유명을 달리했다. 큰 나무 밑은 그늘이 넓은 법이다. 한 시절, 그들의 글을 읽으며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이나마 성숙한 것은 다 그들 덕이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박완서 소설의 고갱이는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이 아닐까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참 후에 나온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도 기실 〈엄마의 말뚝〉의 청소년판이라 보아도 무리 없다.

물론 박완서의 소설세계가 상당히 넓고 깊은지라 이 작품만을 대표작으로 꼽는 것이 결례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의 문학이 한국전쟁이 한 가정과 개인에 미친 영향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의 가치는 남다른 면이 있다.

박완서 소설전집 가운데 〈엄마의 말뚝〉이 표제작으로 올라 있는 책을 읽었다. 다시 읽어보아도 역시 박완서답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런 작가를 과연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섭섭해지고 허망해지기도 했다. 요즘 작가들의 작품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잘 알다시피 〈엄마의 말뚝1〉은 박완서의 상경기다. 양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살렸을 남편을 무지와 몽매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먼저 서울로 올라갔더랬다. 이번에는 딸을 데려간다. 그것은 마치 탯줄을 끊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풍족하고 아름다웠던 고향을 등지고 대처로 떠난다는 것은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박완서는 이런 상황을 정말 맛깔 나게 형상화해 낸다. 읽다 고개를 주억거리며 탄복할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현저동 산꼭대기에서 보내는 삶은 성장소설을 보는 듯싶다.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착한 오라버니. 그 틈에 끼어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소녀. 한 편의 명랑소설이다.

그러다 드디어 말뚝을 박게 된다. 돈을 이리저리 융통해 집을 한 채 장만한 것이다. 이사 간 첫날, 어머니는 말했다.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비록 문밖이긴 하지만"이라고.

비극은 2편에서 확인된다. 어머니가 낙상해서 수술하게 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헛것을 보게 되었다. 완력을 쓰며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오빠에 관한 내용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잠시 좌익운동을 했던 오빠는 회의감을 느껴 자진해서 전향했다. 성품이 곱고 성실하며 엄마의 소원대로 사대문 안에 집도 장만해 화목하게 살았다.

화근은 전쟁이었다. 갑작스러운 후퇴의 여파로 인민군에 끌려갔고, 탈출해 숨었다. 다시 후퇴하게 되었을 때 도민증이 없어 서울에 남아 있었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미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잘 넘기나 싶었지만 수상히 여긴 보위부 군관이 총격을 가했다.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으련만 황망한 상황인지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어머니의 무의식은 오빠의 죽음에 굳건히 말뚝을 박고 있던 셈이다.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다음처럼 악다구니를 쳤던 것이리라.

'안된다 이 노옴'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가슴이 저려 온다. 어머니 보고 정신 차리라며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 전율하게 된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이처럼 핍진하게 그린 작품을 보기는 쉽지 않다.

아, 그 고통을 증언하기 위해, 다시는 이 땅에서 그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비원이 박완서로 하여금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한다. 〈엄마의 말뚝2〉야말로 한국전쟁을 다룬 우리 소설미학의 백미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 이상문학상을 준 이유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세계가 상당히 넓고 깊지만, 그의 문학이 한국전쟁이 한 가정과 개인에 미친 영향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은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특히 〈엄마의 말뚝2〉는 한국전쟁을 다룬 우리 소설미학의 백미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 이상문학상을 준 이유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3편은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를 담담하게 그렸다. 마음의 깊은 우물 속에 원한과 저주, 그리고 미움을 쟁여 놓았던 어머니가 비로소 편안하게 몸을 누인다. 그럼에도 작품을 읽다 보면, 어머니는 과연 홀가분하게 이승의 짐을 내려놓았을까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2편이 주는 여운이 강해서일 성싶다.

다시 읽으면서 박완서 문학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했다. 나이 사십에 〈나목〉으로 등단해, 40년 동안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다. 그만큼 작품의 스펙트럼도 넓다. 전쟁의 잔혹상을 증언한 것은 물론이고 여성문제까지도 소설의 주제로 삼았다.

특별히 단편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비춘 거울 같다. 조금 살게 되었다고 거드름 피우는 세상을 조롱하고 비판했다. 기억할 만한 이들이 자꾸 가니까 대중매체에서 한 시대를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을 남발한다.

너무 자주 쓰니 물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박완서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의 기쁨을 되뇌지 않을 수 없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승의 말뚝은 이제 뽑았지만, 그의 무덤 앞에서는 새로운 말뚝이 박혔다. 거기에는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듯싶다. 시대를 증언한 그의 문학은 계속 읽힐 것이다, 라고. G 글·이권우 (도서평론가)

새로 나온 책

재팬 로드
라이더들을 설레게 하는 80일간의 일본기행
차백성 지음 / 엘빅미디어 · 1만5천원

80일간의 일본 자전거 여행의 기록을 담았다. '역사 순례'를 테마로, 일본만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일본 속에 남아 있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는다. 지리, 풍물, 사건,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사랑을 그리다
줄리엣 헤슬우드 지음 / 아트북스 · 1만3천8백원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구스타프 클림프, 파블로 피카소 등 시대를 대표하는 40명의 화가들이 그린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그린 연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 이야기 및 예술 사조까지 친절하게 들려준다.

문화로 재테크하다
토비 월른 지음 / 이마고 · 1만6천원

남들이 미처 주목하지 않는 문화상품들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알려준다. 오랜 역사를 지닌 수집아이템뿐만 아니라 장난감 같은 자잘한 물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문화 아이템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다.

나쁜 초콜릿
캐럴 오프 지음 / 알마 · 2만2천원

탐닉과 폭력이 공존하는 초콜릿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한다. 오늘날 유기농 초콜릿과 공정무역의 현주소를 알아본 이 책을 통해 결코 달콤하지 않은 초콜릿의 진짜 역사를 만난다. 초콜릿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들은 왜 초콜릿에 열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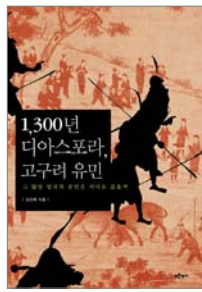
상큼한 봄의 향기 어느새 책 속으로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누구나 이쯤이면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상큼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으로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위원 10명이 문학, 역사, 예술,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0권을 선정했다. 글 · 이미령 인턴기자

이윤기 지음
민음사 펴냄 · 각 1만원

위대한 침묵/유리 그림자

우리 시대의 대표 지성 이윤기 유고 산문집.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37편의 산문과 함께, 번역가인 딸 이다희가 아버지를 추모하며 쓴 글 '아버지의 이름'을 실어 감동을 더했다. 인문교양과 평범한 일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에피소드들을 담았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 집중하고 삶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이윤기의 혜안과 주옥같은 문장들이 빛난다.

"세상에 대한 위트 있는 시선으로 감동을 주었던 뛰어난 문장가 이윤기의 유고 산문집, 유고 소설집."
추천 정과리 (연세대 국문과 교수)

김인희 지음
푸른역사 펴냄 · 1만7천8백원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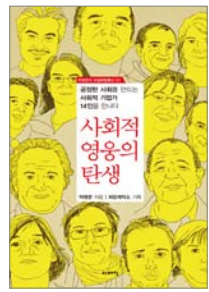
1천3백 년 전 발생한 고구려 유민사의 추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고구려 유민들의 역사를 추적하고, 풍부한 검증자료를 통해 그들의 뿌리와 현재를 밝힌다. 이 책은 먀오족의 뿌리가 고구려 유민이라고 복식, 장식품, 축제, 혼례, 상례, 체질인류학 등 19개의 증거를 들어 설명한다.

"고구려 유민사의 추적을,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책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에도 필요한 책이다."
추천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줄리언 바지니 지음 · 강수정 옮김
한겨레출판 펴냄 · 1만2천원

가짜 논리

세상의 헛소리를 간파하는 77가지 방법. '버터플라이 앤 휠즈 닷컴'에 '논리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 책이다.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는 논리의 오류를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논리의 함정을 지적하고, 올바른 사고를 위해 필요한 건 오직 부지런히 묻고 의심하는 태도라고 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추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박명준 지음
이매진 펴냄 · 1만3천원

사회적 영웅의 탄생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 14인은 "사회적 기업가란 누구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신의 체험과 성찰을 토대로 진술한 이야기들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를 되돌아본다. 독일식 경로를 돌아보고 사회적 영웅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해 한국식 경로를 탐색한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소개하고 분석한 책이다."
추천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댄 애리얼리 지음
김원호 옮김
청림출판 펴냄 · 1만8천원

최준곤 지음
이다미디어 펴냄 · 1만5천원

고연희 지음
아트북스 펴냄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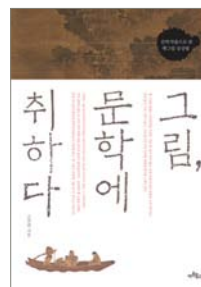
댄 애리얼리 경제 심리학

인간행동의 비합리성을 다방면에 걸친 실험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인간의 비이성이 우리의 습관, 데이트 상대의 선택, 일터에서의 동기의식, 기부행위, 물건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 적응력, 복수욕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이성적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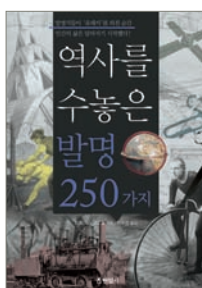
"베스트셀러가 된 〈상식 밖의 경제학〉에 이어 인간의 비합리성을 다시 한 번 흥미롭게 선보인다."
추천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행복한 물리 여행

저자의 실수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물리학자인 고려대학교 최준곤 교수가 '생활 속의 과학'으로 연재했던 칼럼을 새로 다듬어 엮은 책이다. 레일리의 법칙부터 40여 가지의 과학 현상의 원리를 말해준다. 물리가 삶과 사물의 재미있는 이치이자 논리적 사고라는 점을 쉽게 설명한다.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를 덧붙인 저자의 비밀노트 같은 느낌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가 일상생활 속 현상에 숨겨진 과학을 수학적 도구를 빼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추천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그림, 문학에 취하다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읽는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이 책은 옛 그림에 담긴 우리의 고전문학작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고 있다. 그림의 바탕이 된 문학작품을 해설하면서,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정서를 이해하는 감상법을 제안한다. 옛 그림을 감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시문을 자세히 풀이하고, 거기에 오늘의 시각까지 곁들여 설명한다.

"그림들 속에 들어 있는 글귀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그림 감상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추천 이주은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토마스 크로웰 지음
박우정 옮김
현암사 펴냄 · 2만5천원

박상진 지음
김영사 펴냄 · 3만원

글 김영 · 사진 구본창
그림 명수정
청년사 펴냄 · 1만3천원

역사를 수놓은 발명 250가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수많은 발명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대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꼭 필요하고 가장 쓸모 있으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역사적 발명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에어컨, 면도기, 파리채, 포스트잇 등의 역사를 알 수 있다. '한 권으로 읽는 물질문명사 혹은 생활사'라 할 만한 유쾌한 지식이 가득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에 기여한 발명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이다."
추천 탁석산 (철학자)

우리 나무의 세계 1, 2

우리 민족의 삶이 담긴 역사서와 고전소설, 옛 선비들의 문집, 시가집 등 고전문헌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나무의 삶을 재조명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1천여 종이 넘는 우리나라 나무 가운데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2백42종의 나무에 대한 식물학적 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한다. 목재조직학자, 수목학자로서 40년을 보낸 저자의 학문적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문화와 역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2백42종의 나무의 사연을 풀어쓴 책이다."
추천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꼭두랑 놀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중 하나인 꼭두의 모습과 종류를 사진에 담았다. 어른들에게도 낯설어진 전통문화 꼭두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한다. 죽은 이에 대한 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꼭두의 존재를 통해 조상들의 내세관 또는 종교관을 알아본다. 꼭두 사진에 곁들여진 그림은 이야기를 부드럽게 해줌은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우리 민족의 장례 문화와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담아 더욱 선정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천 오은영 (동시 · 동화작가), 서정숙 (그림책 평론가)

꽃샘추위 쯤이야… 봄마중 나온 공연·전시

꽃샘추위가 끝나면 진짜 봄이다. 새 봄·새 학기를 맞아 문화 공연으로 겨우내 움츠려 있던 활력을 다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클래식,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을 소개한다.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클래식

국립오페라단

파우스트 ©Matthias Creutziger

● 국립오페라단 파우스트

국립오페라단이 '괴테 파우스트 시리즈'의 두번째 작품으로 오페라 〈파우스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작곡가 샤를 구노의 작품으로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한 많은 오페라 작품 중에서도 음악적 서정성과 우아함이 돋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프랑스 오페라 전통의 발레 장면까지 더해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우스트' 역으로 세계적인 테너 김우영을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3월 16일, 3월 18~20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 15만원 R 12만원 S 8만원 A 5만원 B 3만원 C 1만원 이벤트 3만원 대학생 1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88-7890

● 2011 교향악 축제

1988년 시작한 이래 연주자와 청중 모두를 위한 음악축제로 발전한 〈교향악축제〉가 2011년의 화려한 막을 연다. 〈2011 교향악 축제〉에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과 국내 음악계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높은 수준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11년 4월 1~20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 **문의** 1588-7890

콘서트

● 2011 이문세 붉은노을

2009~2010년 큰 인기를 끈 '이문세 붉은노을' 콘서트가 2011년 4월 다시 시작된다. DJ 활동으로 다져진 이문세의 입담과 함께 그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들으며 아날로그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2011년 4월 1~17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VIP 일반 9만9천원 학생 4만9천5백원 장애인 및 동반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1566-1369

● 김장훈 콘서트-부산

공연의 황제 김장훈이 이번에는 'letter to 김현식'이라는 이름으로 고(故) 김현식 20주기를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 이를 위해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최고의 가수, 연주자들을 초대했다. 고 김현식의 명성을 기리는 뜻 깊은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일시 2011년 3월 11일 **장소** 부산 KBS홀 **관람료**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B석 7만7천원 C석 6만6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600-1716

조선DB

연합

연극

조선DB

서울시

조선DB

익어컴퍼니

● 라이어

이제는 국민연극이 돼버린 〈라이어·사진1〉. 전회매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라이어〉는 마음 약한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담았다. 현재 〈라이어〉는 3탄까지 공연하고 있으며, 1~3탄은 연속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어느 공연을 먼저 봐도 무방하다.

일시 ~오픈런 **장소** 강남 동양아트홀 **관람료** 일반석 2만5천원 국가유공자·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15-6510

● 늘근도둑이야기

20여 년간 관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연극이다. 〈늘근도둑이야기·사진2〉는 웃음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시사풍자 코미디다.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두 늙은 도둑의 인생 마지막 한탕을 이야기한 이 작품은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일시 2011년 2월 11일~오픈런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차이무극장 **관람료** 일반석 3만5천원 국가유공자·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62-0010

●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사진3〉은 대학로 변두리에 자리 잡고 공연한 이래 약 30개월 동안 11만여 관객이 다녀가며 1백 석 소극장의 기적으로 불렸던 연극이다. 마음이 지칠 때 찾아갈 수 있는 공연, 눈물 쏙 빠지게 웃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감동과 교훈을 담아갈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오픈런 **장소** 오아시스극장 **관람료** 일반석 2만원 **문의** 02-3673-0888

● 대머리 여가수

시대의 부조리함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대머리 여가수·사진4〉는 배우 안석환의 연출 데뷔작이다. 원작의 배경을 서울로 바꾸는 등 모든 것을 한국의 것들로 바꿨다. 공연 중에 전화를 마음대로 받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 색다른 관람문화를 느낄 수 있다.

일시 2011년 3월 31일까지 **장소** 대학로 SM아트홀 **관람료** 일반석 4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62-0010

국악·무용

●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 〈돈키호테〉를 무대화한 코믹 발레 로망 〈돈키호테〉를 국립발레단이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역대 〈돈키호테〉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흥미롭다고 평가되는 고르스키 버전을 재구성한 것으로 재미와 위트, 스페인 춤의 경쾌함을 겸비한 발레를 감상할 수 있다.

일시 2011년 3월 11~12일 **장소** 서울열린극장 창동 **관람료**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문의** 02-994-1469

● 삼청각 자미

2010년 인기를 끌었던 삼청각의 런치콘서트 '자미'가 업그레이드됐다. 무용과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국악퀴즈, 신청곡 이벤트 등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훌륭한 공연도 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3월 1일~6월 29일, 9월 5일~12월 28일 **장소** 삼청각 **관람료** 5만원 **문의** 02-765-3700

전시

●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

20세기 최고의 색채화가 마르크 샤갈(1887~1985)의 걸작을 만날 수 있다. 전 세계 30여 곳에서 모아온 샤갈의 명작 1백6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이다.

일시 2011년 3월 27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예술마당 2관 대극장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 **문의** 1577-8968

● 다빈치전

세계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빈치의 발명품을 비롯해 그림, 스케치와 벽화 등을 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1일까지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일반 1만5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2천원 장애인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1555

2월 넷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곡명	가수
1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IU)
2 Tonight	빅뱅
3 내꺼중에 최고	에이트 이현
4 Dreaming (드림하이 OST)	김수현
5 Cafe	빅뱅
6 톡톡 (Tok Tok) (Feat. Soya)	마이티 마우스
7 What Is Right	빅뱅
8 Black & White	G.NA
9 잔혹동화	아이유 (IU)
10 Hands Up	빅뱅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부자'들

일러스트·이우정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가지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것이다. 아무래도 돈 만지는 이들은 그 크기가 클 듯하다.
반면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다른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다. 그래서 무작정 큰돈만을 꿈꾸지는 않는다. 다만 경제적으로 '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은 사람들이 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활동을 한다고 가르친다. 또 소비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활동을 한다고 가르친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라고 가르친다. 확실히 돈만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면 그럴지 모른다. '잇속의 경제학'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경주 최부자는 왜 '만 석 이상은 벌지 말라'고 했을까. 만 석이 아니라 2만 석, 3만 석도 벌 수 있어서 벌면 그만일 터인데, 왜 그것을 벌지 말라 했을까.

또 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을까. 흉년에 돈 없는 이들의 싼 땅들을 마구 사들이면 떼돈을 벌 수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사지 말라 했을까. 여기에는 기존의 경제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인간은 확실히 이윤동기와 효용동기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일견 그것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우리네 삶은 그러하지 않다. 사람들은 평소 정신없이 돈벌이에 나섰다가도 간혹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어떨 땐 내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나로 인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는 때도 있다. 내가 이 순간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잠시 속임수를 써서 푼돈을 벌었다 해도 돌아서서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내 안의 양심이다. 우리들의 양심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한다. 약탈적 부자가 되지 말고, 내 잇속을 위해 남의 가슴에 못 박지 말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돈 있다고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해 마구 베팅을 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원유사태가 발생하면 물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소비부터 줄이게 한다. 바로 양심으로부터 요구되는 '절제의 경제학'이다.

이 같은 절제는 행동의 목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과정과 사후처리에서도 요구된다. 왜 선구적인 기업들은 적법경영,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나설까. 왜 미국의 일부 부자들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할까. 왜 카네기는 '부자로서 죽는 것은 수치'라고 했을까. 이렇게 절제를 실천해 가면서도 잘 먹고 잘사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이 바로 좋은 부자들이다.

"우리네 삶은 평소 정신없이 돈벌이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양심의 요청을 받는다. 그래서 돈 있다고 이윤 극대화에 베팅을 하지 않게 된다. 바로 '절제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절제를 실천하면서도 잘 먹고 잘사는 이들이 바로 좋은 부자들이다."

부디 이런 좋은 부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자들이 많아지면 우선 자신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고통 받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큰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 많은 경제학 교과서도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동물적 탐욕을 전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절제와의 조화를 찾아 새로운 삶을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했던 탓으로 자신도 모르게 돈, 돈 하는 세상에 빠져들었다. 이제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반성한다.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무욕(無慾)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했는지. G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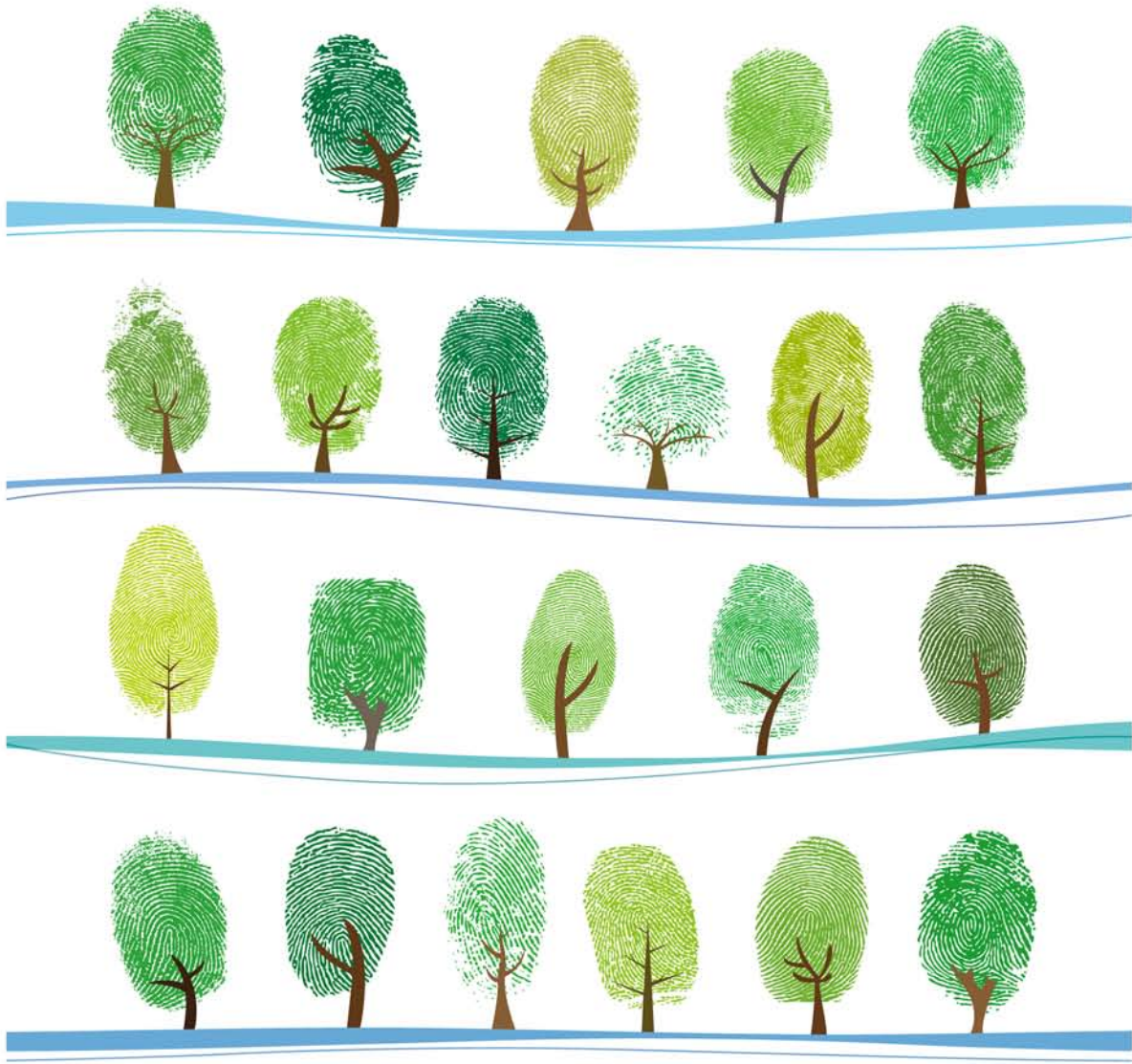
201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수상작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1년간 낭비되는 에너지는 **나무 스무 그루가 흡수하는 CO_2의 양과 같습니다.**
플러그를 뽑을 수록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을 때 뽑아두는 습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주세요

우리 강에 생명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변 나무심기」와 함께하세요!

강변이 테마 숲 조성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꾸며집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강변 숲은 자연과 지역의 정서가 어우러지는 테마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희망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로 심는 나무에는 심으시는 분의 이름을 담은 표찰을 달아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강을 아름답게 꾸미고, 즐거운 추억도 담아가세요.

희망캡슐로 추억을 간직하세요!
참가하신분들의 사연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해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나만의 나무'를 직접 구입하여 심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 여 대 상** 개인,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 **접 수 기 간** 2011년 2월 22일 ~ 3월 20일
- **신 청 방 법** "www.4rivers.go.kr/tree"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수종, 수량, 표찰 기재문구 등 작성

※ 행사일, 행사장소, 우편접수주소는 "www.4rivers.go.kr/tree"를 통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